Sports p/06

프로야구 FA 2막 열렸다

metro

메트로 2014년 11월 28일 금요일 제3105호 www.metroseoul.co.kr

Global p/18

세계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아픔과 상처 달랜 환상적인 하모니 27일 오후 8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메트로 송년음악회 '신영 게시이 & 베토벤 환상교향곡'에서 바리톤 김동규가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를 열창하고 있다 /한준희 기자

'블랙프라이데이' 판촉전 불붙다

해외직구 열풍 힘입어 유통업체들 행사준비 열올려
백화점-대형마트, 품목 늘리고 최대 90% 할인 공세

유통업계가 블랙프라이데이를 통해 매출 회복에 나선다. 미국의 이벤트이지만 해외 직구 열풍이 불면서 지난해부터 업계는 블랙프라이데이가 연말 중요 행사로 굳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블랙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의 다음 날인 11월 넷째 주 금요일을 말한다. 이날 미국 유통업체들의 회계장부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고 해서 '검은 금요일(블랙프라이데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대부분 유통업체 참가

대부분의 국내 유통 업계가 지난주부터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 돌입해 미리 직구를 준비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먼저 현대백화점은 28일부터 30일까지 '블랙 위크엔드'를 주제로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점별로 인기 브랜드를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 종합 쇼핑몰인 '현대H몰'도 함께 진행된다.

신세계는 신세계 센텀시티점, 인천점, 광주점 등 백화점 매장에서 28일부터 30일까지 '패션잡화 초특가 행사'를 편친다고 밝혔다. 게스·세옥스·락포트·나인웨스트의 서울 몽부츠, 영클부츠를 균일가 5만원부터 판매한다. 루이까또즈·다스·반폴·시슬리·엔클라인 등 핸드백도 70% 안팎의 세일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갤러리아 명품관도 이 기간 총 12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한 가운데 최대 90%까지 할인한다. 그동안 노세일 정책을 고수하는 브랜드들도 세일에 합류한다. 다음 달 31일까지 블랙 디셈버 프로모션을 마련해 갤러리아 자사 카드 소지 고객이 30만원 이상 결제하면 12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한다.

AK플라자는 분당점은 28~30일 해외 명품을 30~60% 시즌오프 판매한다. 5층 이벤트홀에선 '핸드 와인 루어'를 열고 10억원어치 물량을 최고 75%까지 할인한다. 이 백화점 평택점은 28일 하루 동안 유아동 전 브랜드가 할인 행사에 참여한다.

롯데면세점은 28일부터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행사 기간 전국 주요 지점에서는 펜디·비비안웨스트우드·막스마라·에트로·지미추 등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80%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대형마트도 대규모 이벤트를 기획하며 블랙프라이데이 특수 맞이에 한창이다.

이마트는 27일부터 창고형 점포인 트레이더스 구성점과 수원점에서 '블랙 트레이더이' 행사를 열고 10억원 규모의 병행수입 상품 1만5000여 점을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행사 물량을 20% 늘리고 다양한 수입 루트를 확보하고 사전 기획을 통해 가격을 국내 온라인 쇼핑몰 판매가보다 20~50% 가량 낮췄다.

롯데마트는 다음 달 3일까지 전 점포에서 주요 생활필수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블랙 위크' 행사를 연다. 해외 직구가 어려운 신선식품을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특히 30일까지 토이저러스 온라인몰을 통해 하루 250개 한정으로 티라노킹을 7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3면에 계속>

/장병일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21세기 거북선' 장보고III 건조

중형잠수함 제작 착수

국내 순수 기술로 '21세기 거북선' 역할을 맡게 될 3000t급 중형잠수함이 본격 건조된다.

대우조선해양은 27일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시작을 알리는 강재절단식을 거행하며 3000t급 중형잠수함 '장보고III' 제작에 들어갔다. 이번 장보고III 건조로 한국은 잠수함 자체 설계와 건조를 할 수 있는 12번째 국가로 발돋움했다.

2007년부터 6년 간 개발과 설계 작업을 진행해온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3월 신설된 장보고III 사업단을 통해 방위사업청, 해군과 협력해 잠수함에 탑재될 전투·소나체계, 연료전지, 추진전동기 등 주요 장비 39종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장보고III 생산을 준비했다. 때문에 이번 생산 착공식은 대우조선해양이 본격 생산을 위한 기술 검증과 3000t급 중형잠수함의 실제 제품생산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 된 것을 의미한다.

대우조선해양은 1987년 독일에서 잠수함 기술을 전수해 건조를 시작, 2011년에는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3척을 수출하는 등 지금까지 총 17척의 잠수함을 수주, 건조해 국내 최다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장보고III는 2018년 진수된 뒤 2년의 전력화 과정을 거친 후 2020년 실전에 배치된다. /김민준기자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자연을 돌아보게 하는 작은 손길…

이 주의 선택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제인 구달

"우리가 종종 듣는 말 중 이런 말이 있죠. 이 세상은 부모가 물려준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빌린 것이다. 우리는 빌린 게 아니에요. 빌리는 건 갚는다는 건데 이건 훔친 거죠. 지금도 훔치고 있고요. 우리는 달라져야 해요."

'제인 구달'의 오프닝은 확고한 선언으로 관객의 시선을 붙잡는다. 영화의 주인공인 제인 구달의 이 말에는 세상에 대한 그의 태도가 잘 담겨 있다. '제인 구달'은 저명한 동물학자에서 환경운동가로 전 세계를 누비며 세상을 바꾸고 있는 제인 구달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다.

영화는 '제인의 여정'이라는 뜻의 원제처럼 제인 구달의 삶을 천천히 따라간다. 제인 구달 본인의 이야기가 그 여정의 출발점이다. 두 살 때 아버지로부터 침팬지 인형을 받았던 기억, 그리고 스물셋 나이에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로 떠나 침팬지와 함께 생활하게 된 사연을 제인 구달은 추억을 곱씹듯 관객에게 전한다. 그녀의 곁에 함께 했던 두 남자 휴고 반 라윅, 데릭 브라이슨과의 러브 스토리는 다소 단조로울 수 있는 이야기에 작은 재미를 더한다.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은 제인 구달이 1986년을 회상하면서부터다. 그녀가 동물학자에서 벗어나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기로 결심한 시기다. 영화는 자연스럽게 제인 구달을 둘러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관심을 돌린다. 배우 피어스 브로스넌, 비서 메리 루이스 등 그녀와 절친한 사람들은 물론 강연에서 그녀를 처음 만난 일반인의 발언은 제인 구달의 친근함과 비범함을 잘 보여준다.

영화 속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제인 구달의 강연이다. "가장 지적인 존재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뿐인 터전인 지구를 파괴할 수 있니?"는 날카로운 질문은 관객의 마음에도 깊이 파고든다. 제인 구달은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지구를 파괴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 희망은 있다"는 말도 빼놓지 않는다. '제인 구달'의 가장 큰 미덕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세상을 향한 희망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다.

탄자니아의 광활한 초원, 녹아내리는 그린란드의 빙산의 풍경을 아름답게 담아내던 영화는 한 순간 사람들로 빽빽이 들어찬 도시의 풍경을 비춘다. 그렇게 '제인 구달'은 바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세상과 자연을 돌아보라며 작은 손길을 내밀고 있다. 전체 관람가.

이 주의 개봉작

덤 앤 더머 투
장르 코미디
감독 패럴리 형제
출연 짐 캐리, 제프 다니엘스

오로지 개그 하나를 치기 위해 20년 동안 환자인 척 했던 로이드는 해리를 완벽히 속인 뒤 가뿐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다. 그곳에서 발견한 엽서에는 옛 연인으로부터 아이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해리와 로이드는 잊고 지낸 딸의 행방을 찾아 여정을 시작한다.

꾸뻬씨의 행복여행
장르 드라마
감독 피터 첼섬
출연 사이먼 페그, 로자먼드 파이크

런던에서 살고 있는 헥터는 매일 같아 불행하니고 외치는 사람들을 매일 같이 만나야 하는 정신과 의사. 나 그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궁금한 마음에 모든 것을 제쳐두고 행복을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난다. 수많은 인연들을 통해 행복 리스트를 완성해 나간다.

혼스
장르 스릴러
감독 알렉산드르 아야
출연 다니엘 래드클리프, 주노 템플

첫사랑이었던 연인 메린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자 이그는 알리바이가 없다는 이유로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지목받게 된다. 주저 냉소로 둘러싸 의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이그의 머리에서는 뿔이 자라나기 시작한다.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장르 다큐멘터리
감독 진모영
출연 조병만, 강계열

89세 강계열 할머니와 98세 조병만 할아버지는 어디를 가든 고운 빛깔의 커플 한복을 입고 두 손을 꼭 잡고 걷는 노부부. 매일이 신혼 같은 백 년 노부부는 그러나 귀여워하던 강아지 꼬마의 죽음 이후 머지않아 다가올 또 다른 이별을 준비한다.

"예술·독립영화 축제 보러 오세요"

씨네큐브 프리미어 페스티벌·서울독립영화제 개최

HOT SCREEN

11월 마지막 주말 극장가에서는 작지만 의미 있는 특별전과 영화제가 열린다.

예술영화관 씨네큐브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14 씨네큐브 예술영화 프리미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올해 칸영화제 심사위원상 수상작 '마미'와 여우주연상 수상작 '맵 투 더 스타'를 포함한 미개봉 예술영화 16편을 상영한다. '칸의 선택' '거장의 새로운 이야기' '이야기의 시작: 모티브' '낭만의 도시 파리로의 여행' 등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됐다.

'칸의 선택' 섹션에는 '마미' '맵 투 더 스타' 외에도 각본상을 수상한 '리바이어던'을 만날 수 있다. 황금종려상 후보에 오른 '클라우즈 오브 실스 마리아', 다르덴 형제의 신작 '내일을 위한 시간' 등도 상영한다.

'거장의 새로운 이야기' 섹션에서는 거장 감독들의 신작을 소개한다. 프랑수아 오종·마셀 공드리·미이시아 유에 감독 등의 작품이 포함됐다. '이야기의 시작: 모티브' 섹션에서는 '고백'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으로 유명한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의 갈증'이 첫 선을 보인다. 비틀즈의 동명의 노래가 모티브가 된 '엘리노어 리그비: 그 남자 그 여자'도 국내에서 최초로 상영된다.

이밖에도 이자벨 위페르 주연의 '파리 폴리', 필립 가렐 감독의 신작 '질투' 등을 '낭만의 도시 파리로의 여행' 섹션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독립영화 최대의 축제인 서울독립영화제 2014도 27일 개막한다. 올해로 40회를 맞이하는 영화제로 '독립본색'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장편 11편과 단편 35편이 총 상금 7200만원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4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한국 독립 단편영화의 빛나는 성취를 되돌아보는 '35mm 단편영화 특별전', 미국 독립영화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보다 낯선: 미국 독립영화의 전설 1984~1994' 등을 준비 중이다.

개막작으로는 윤성호, 구교환&이옥섭, 강경태 감독의 옴니버스 영화 '오늘영화'가 선정됐다. 27일 CGV 압구정에서 개막하며 다음달 5일까지 CGV 아트하우스 압구정과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린다.

/장병호기자

▲서울독립영화제2014 개막작 '오늘영화' 중 '백역사'

◀2014 씨네큐브 예술영화 프리미어 페스티벌 상영작 '파리 폴리'

"소비자는 장르 변화에 준비돼 있다"

알고보는 TV

웹툰 '미생'의 윤태호 작가(가운데)가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2014 창조경제박람회' 특설무대에서 좌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드라마 '미생'의 기획제작을 맡고 있는 이재문PD(오른쪽)도 함께했다. 칼럼니스트 김태훈이 사회를 봤다. /CJ E&M 제공

'미생' 열풍이다. 성인남녀들이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직장인의 애환을 사실감 있게 그린 이 작품은 드라마·웹툰·만화 등 장르를 넘나들며 시청자와 독자를 울리고 있다.

대중 앞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웹툰 '미생'의 윤태호 작가는 드라마의 기획과 제작을 맡고 있는 이재문 PD와 함께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2014 창조경제박람회' 특설무대에서 좌담회를 가졌다.

윤태호 작가는 "소비자들의 수준이 높아졌다. 웹툰은 10대만의 시장이라는 틀을 벗고 모바일에서 아저씨들의 '클릭'을 이끌고 있다. 웹툰 시장이 장년층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리고 이번 드라마를 통해 여성들의 유입도 이끌었다. 이는 다시 출판물의 성공으로 돌아가 선순환을 타고 있다"며 "장르의 변환이 쉽게 이뤄지고 있다. 소비자는 이런 변화에 준비가 돼 있다"고 입을 열었다.

웹툰 '미생'을 만들기 위해 윤태호 작가는 4년 7개월의 긴 시간을 투자했다. 그는 웹툰이 웹툰으로써 정체성을 가지고 완성도가 높아야 독자를 끌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태호 작가는 "한국 독자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인간 자체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세계인이라는 생각과 그에 걸맞는 작품을 구상하고 지구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작품이 나와야 한다. 또 그런 문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드라마 '미생'은 자극적인 소재와 멜로가 중심인 기존 드라마의 제작 질서와 관행을 따르지 않고서도 성공을 거둔 사례로 꼽힌다. 이재문 PD는 "새로운 이야기를 내놓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한두 명의 주인공 중심이 아닌 대기업의 이야기, 한국에 가장 많은 회사원을 그리고 싶었다"며 "처음에는 웹툰의 의도를 상실할까봐 반대도 했다. 그럼에도 드라마화에 확신이 든 것은 철저한 공감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웹툰을 드라마로 만들기 위해 웹툰 못지않은 취재 과정도 거쳤다. 이재문 PD는 "철저히 윤태호 작가처럼 하려고 했다. 무역상사 직원, 바둑기사를 찾아 다니며 취재했고 많은 충격을 받았다. 취재 과정에서 '윤태호도 여기서는 막혔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며 "우리 작가는 실제 상사에 인턴으로 출근하기도 했다. 현장 공기를 알고 나니 대본이 달라졌다"고 드라마 준비 과정을 설명했다.

국내 드라마 전반에 위기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재문 PD는 "만약 '미생'이 지상파 시스템 안에서 우리처럼 오랜 기간 준비했다면 더 잘 만들어졌을 것이다. 웹툰이 주목받는 것은 드라마 제작에서 다른 소재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기존 드라마 작가가 고수했던 스킬이나 시청률을 올리는 공식을 허물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등을 다시 한 번 짚어야 할 때다. '이야기꾼'은 많지만 모두가 빨리 가려고만 한다"며 국내 드라마 제작 현실을 꼬집었다.

현재 윤태호 작가는 '미생' 시즌2를 제작 중이다. 윤 작가는 "올 가을에 내기로 했는데 내년 3월로 연기됐다. 또 연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문 PD는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시즌2도 드라마로 하고 싶다"며 드라마 '미생2'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Top Stage

힙합부터 발라드까지 '입맛대로 골라 보자'

주말 공연가 다양한 장르 콘서트 풍성

이번주 공연가는 힙합·모던록·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가 무대에서 함께 어우러질 전망이다.

힙합레이블 일리네어 레코즈 CEO인 래퍼 도끼는 29·30일 이틀 동안 서울 마포구 서교동 예스24 무브홀에서 단독 콘서트 '엉김 멩보스'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 도끼는 신곡 '자키자카조코조'를 비롯해 '뷰에 비은다 주득주득', '랩스타', '온 마이 웨이' 등 일리네어 레코즈의 음악 색깔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도끼는 유 여름 방송된 엠넷 래퍼 서바이벌 '쇼미더머니3'에서 일리네어 레코즈를 함께 이끌고 있는 래퍼 더콰이엇과 함께 심사위원(프로듀서)으로 출연했다. 당시 도끼와 더콰이엇은 YG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이었던 바비의 팀을 꾸렸다. 바비는 일리네어 레코즈의 노래 '연결고리' '힙합' 가' 등을 재해석해 부르며 아이돌 래퍼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끼와 더 콰이엇도 '힙합 신의 대세'임을 입증했다.

홍대가 힙합에 빠져있을 동안 이태원에서는 모던 록의 물결이 이어질 예정이다.

밴드 메이트는 29, 30일 이틀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메이트가 3년 6개월 만에 발표한 새 앨범 '엔드 오브 더 월드'의 유일한 공식 활동이다. 3인조인 메이트는 멤버 이현재의 중국 연기 활동 스케줄때문에 부득이 정준일·임헌일 2인조로 활동하게 됐다. 이번 공연을 제외한 메이트의 공식적인 컴백 활동은 이현재 합류 뒤 이뤄질 전망이다. 정준일·임헌일은 "이번 활동은 둘이서 하게 됐지만 멤버 교체나 팀 이름 변경 없이 진행한다"며 "이현재가 함께 활동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엔드 오브 더 월드'의 타이틀 곡 '하루'와 선공개곡 '베이비'를 포함해 메이트의 다양한 노래를 만나 볼 수 있다.

솔로 가수 허각은 동료 가수들의 든든한 지원 사격 속에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허각은 28, 29일 이틀간 서울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단독 콘서트 '스토리'를 연다. 이번 공연에는 다비치와 에이핑크가 게스트로 출연해 허각을 응원할 계획이다. 다비치와 에이핑크는 각각 28일과 29일 무대에 오른다.

허각의 소속사에 따르면 다비치 멤버 이해리는 허각과 동갑내기 친구로 게스트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다. 21일 신곡 '러브 로 컴백한 에이핑크는 같은 소속사 식구인 허각을 응원하기 위해 참여를 결정했다. 특히 에이핑크의 메인 보컬 정은지는 허각과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꾸밀 계획이다.

허각은 "최근 발표한 '데이 앤 나이트'를 비롯해 '행복', '죽고 싶단 말밖에' 등 수많은 히트곡을 함께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공연에서 보여주지 못한 새로운 무대를 많이 준비했다"고 전했다.

그룹 엠블랙은 29·30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단독 콘서트 '커튼콜'을 개최한다.

엠블랙은 이번 공연에서 지난 25일 발표한 미니 7집 '겨울'을 최초로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 앞서 엠블랙은 멤버 이준의 탈퇴설이 나오며 힘든 시기를 보냈다. 당시 한 매체는 이준이 소속사 제이튠 캠프의 계약기간이 끝난 사실을 근거로 '커튼콜' 공연을 끝으로 팀을 탈퇴하고 연기자로 전향해 활동할 계획이라 보도했다.

하지만 이준은 지난 3월 MBC 수목드라마 '미스터 백' 제작발표회에서 "계약 만료 시기가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며 "회사와 협의 중이며 결정되는 대로 회사 측에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연이 5인조 엠블랙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김학철기자 sngkim@

그룹 엠블랙 미니 7집 '겨울' 앨범 재킷.

도끼

"가볍게 듣고 즐겨 주세요"

'굿보이'로 컴백한 지디X태양

태양 지드래곤

weekend interview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지디)과 태양이 유닛 '지디X태양'으로 컴백했다. 스물일곱 살 동갑내기 두 사람은 빅뱅의 대중적인 음악과 다른 트랩 비트의 힙합 곡 '굿보이'를 발표했다. 지난 20일 공개된 '굿보이'의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조회수 700만 건을 돌파했고 같은 날 발매된 음원은 국내 음원차트 상위권에 랭크되며 솔로 아티스트 지드래곤과 태양의 이름값을 제대로 증명했다.

◆'굿보이'는 유닛의 색을 보여준 곡인가?

"'지디X태양'의 색깔에 가장 근접한 곡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준비하면서도 싱글이 될지 앨범으로 나올지 뮤직비디오를 찍을지 말지도 몰랐던 프로젝트였다. 만약 앨범으로 나왔다면 더 다양한 시도를 했을 테고 음악 색깔도 조금 바뀌었을 거다." (지디)

◆대중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 같다.

"전혀 안 했다. 빅뱅이 아닌 다른 음악을 할 때는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생각해서 곡을 쓴다. '굿보이'도 가볍게 듣고 즐길 수 있는 노래를 해보자고 해 만들기 시작했다. 가사에도 많은 의미를 담지 않았다." (지디)

◆지디의 솔로곡 '크레용' 때부터 느꼈다. 트랩 장르에 꽂혀 있나?

"트랩 장르는 사실 유행이 지난 건데 특정 힙합 프로그램이 대중에게 인기를 얻다 보니 다시 관심을 끌게 됐다. 예전에는 남들과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한발 앞서 하자는 게 목표였다면 이번에는 대중적으로 트랩 장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니까 그 분위를 다시 만들고 싶었다." (지디)

◆아이돌이기 때문에 평가 절하된다는 느낌은?

"아이돌이라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것도 있다. 힙합하는 친구들은 아이돌을 색안경 끼고 보니까 안 좋은 점이 더 많이 부각된다. 나는 보고 듣는 사람들이 판단한다고 본다. 듣기 좋으면 좋은 거다. 노래를 듣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이돌이라 못한다고 평가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 평가 받아야 하는 입장이니 잘 하는 데 충실해야지." (지디)

◆14년 친구지만 '굿보이'를 작업하면서 갈등은 없었나?

"없었다. 스타일을 잘 알고 있어서 서로 맞추며 채워갔다." (지디)

"그렇다. 나와 지디는 스케줄이 없으면 계속 작업실에 있기 때문에 작업이 수월하다." (태양)

◆두 사람은 사이가 좋은데 각자의 팬들은 대립하기도 한다.

"태양과 지디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편도 각자의 것만 보려고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할 친구인데 각자의 팬들이 안 좋게 보니까 아쉽다." (태양)

"솔직히 이해가지 않는다. 싫으면 안 봤을 거다. 서로 잘 되자고 하는 일이다. 개인 팬뿐만 아니라 빅뱅 팬, 우리를 좋아해주는 대중이 모두 고맙지만 개인 팬끼리 갈등하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르겠다. 다 빅뱅에 대한 기대감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줬으면 좋겠다." (지디)

"대중성 고려 안 해…하고 싶은 음악 했다"
"개인 팬 서로 사랑했으면…"
"빅뱅 컴백 완성도 있게 할 것"

◆빅뱅과 YG의 성공은 궤적 상통하다. 두 사람에게 YG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회사의 초기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성장하는 걸 보면 기분 좋다. 그런데 요즘에는 예전이 그립기도 하다. 앨범이 나올 때마다 모두 하나가 돼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가수도 많아졌고 체계적으로 담당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느낌이 다르다." (태양)

"뿌듯하고 좋다. 그런데 회사가 작았을 때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성장하니까 회사에 갈 때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다. 늘 익숙하고 집 같아야 하는데 갈수록 '누구 집이었지?'라는 느낌이 강하다. 그렇다고 욕심 내서 '사장님 우리만 신경 쓰세요'라고 할 일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하고 대표는 신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는 게 당연하다." (지디)

◆빅뱅 앨범은 언제 다오나?

"계획대로라면 이미 나왔어야 했는데 없은 게 몇 번째다.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 시점까지 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치가 높아진다. 그러니 그럭저럭한 곡으로 앨범을 채우고 싶지는 않다. 곡마다 완성도 있게 만들 거다. 특히 빅뱅은 솔로나 유닛보다 더 대중적이어야 한다. 내년에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컴백해야 한다." (지디)

/권효진기자 eonhj@metroseoul.co.kr 디자인/원승희

아픔과 상처 달랜 환상적인 하모니

27일 오후 8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메트로 송년음악회 '헨델 메시아 & 베토벤 합창교향곡'에서 메조소프라노 이아경이 헨델의 '메시아' 중 "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를 부르고 있다. /한준희(프리랜서)기자

크고 작은 사건사고로 아픔도 상처도 많았던 2014년의 마지막. 그 아픔을 달래줄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이 광화문을 따뜻하게 어루만졌다.

메트로신문이 주최하는 송년음악회 '헨델 메시아 & 베토벤 합창교향곡'이 27일 오후 8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이번 공연은 다사다난했던 2014년의 마지막을 어루만질 '쉼'과 '힐링'이라는 주제로 구성됐다. 서희태 지휘자가 이끄는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와 서울시합창단, 스칼라오페라합창단, 그리고 유명 성악가들이 극장을 가득 채운 2900여 명 관객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1부 공연은 헨델의 '메시아' 하이라이트 메들리로 꾸며졌다. 헨델의 많은 작품들 가운데 일반인에게 가장 친숙한 노래다. 성탄절에 즐겨 연주되고 있어 연말 분위기를 나타내는 음악이기도 하다.

서희태 지휘자의 등장과 함께 공연은 엄숙하고 숙연한 '서곡'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진 '주의 영광'에서는 서울시합창단과 스칼라오페라합창단의 노래가 대극장 안을 퍼져나갔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노래에 장엄에 객석에서 박수가 나왔다.

'깨끗게 하시리'에 이어 '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에서는 메조소프라노 이아경이 무대에 올라 멋진 노래를 선사했다. '우리를 위해 나셨다'에서는 또 한 번 합창단의 노래가 마음을 풍성함으로 채웠다. 소프라노 박미경은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하라'로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그 뒤에는 쉬고 그 짐은 가벼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등이 이어졌다. 노래가 끝날 때마다 박수 소리도 점점 더 커져갔다. '주께서 저들을 깨트리시리라'에서는 테너 신동원이 등장해 깊은 울림을 전했다. 50분 동안 이어진 클래식 선율에 극장은 어느새 감동으로 차올라 있었다. 그 끝에는 '할렐루야'가 있었다. 관객들은 멋진 연주와 노래에 큰 환호로 화답했다.

2부에서는 앞서 무대에 올랐던 소프라노 박미자, 메조소프라노 이미경, 테너 신동원, 그리고 바리톤 김동규 등 성악가 무대가 이어졌다. 마음을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오페라 명곡과 가곡의 향연이었다.

먼저 무대에 오른 박미자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이상해… 항상 자유롭게'로 막을 열었다. 이어 신동원은 '네순 도르마'라는 원제로 잘 알려진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로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이아경은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어머니도 아시다시피'로 멋진 무대를 보여줬다.

김동규는 멋진 퍼포먼스와 함께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로 관객의 탄성을 이끌어냈다. 객석에서는 그의 노래에 맞춰 "올레, 올레"가 터져나왔다. 친숙한 후렴구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다.

이날 공연의 대미는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인 '합창'의 4악장이 장식했다. 베토벤이 완성해낸 마지막 교향곡이자 오랜 세월에 걸쳐 작곡된 역작이다. 출연진 모두가 무대에 올라 환상적인 하모니를 선사했다.

두 시간 동안 펼쳐진 공연은 많은 일이 있었던 2014년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충분했다.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과 환상적인 하모니에 따뜻함을 얻은 객석에서는 기쁨과 아쉬움이 녹아든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이에 화답하듯 서희태 지휘자, 성악가 김동규가 다시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앙코르곡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로 객석의 아쉬움을 달랬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이상해… 항상 자유롭게'를 부른 소프라노 박미자에게 서희태 지휘자가 인사를 건네고 있다. /한준희(프리랜서)기자

2014 메트로 송년음악회 '헨델 메시아 & 베토벤 합창교향곡'을 찾은 관람객들이 티켓 구매를 위해 줄서 있다. /손진영기자 son@

2014 메트로 송년음악회 '헨델 메시아 & 베토벤 합창교향곡'을 찾은 관람객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왼쪽부터 바리톤 김동규, 지휘자 서희태 /한준희(프리랜서)기자

"희망과 행복 느끼는 연말 되길"

송년음악회서 만난 지휘자 서희태·바리톤 김동규

"연말이 되면 우리 기억 속에 한 번쯤 들어봤을 음악이 다시 듣고 싶어집니다. 헨델의 '메시아'와 베토벤의 '합창'이 그런 음악이죠."

메트로신문이 연말을 맞이해 마련한 '헨델 메시아 & 베토벤 합창교향곡'에 함께 한 서희태 지휘자와 바리톤 김동규가 같은 마음으로 이날 공연의 의미를 전했다.

27일 오후 8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대기실에서 만난 서희태 지휘자는 "헨델의 '메시아'와 베토벤의 '합창'은 긴 연주 시간 때문에 함께 듣기에는 부담이 되는 곡"이라며 "오늘 공연은 두 음악의 엑기스만 모은 만큼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주인공 강마에의 실제 모델로도 잘 알려져 있는 서희태 지휘자는 이날 절제되면서도 섬세한 지휘로 두 시간의 공연을 이끌었다. 그는 이번 공연을 통해 관객들이 희망과 힘을 얻어가기를 바랐다. 또한 "메트로신문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학하던 시절 접했던 세계적인 신문"이라며 "메트로신문을 통해 독자들에게도 좋은 소식과 희망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내 최고의 바리톤인 성악가 김동규는 이번 공연으로 '행복'을 전하길 바랐다. 그는 "독창도 좋지만 연말이 되면 오늘처럼 다른 이들과 함께 공연하는 것도 좋다"며 "합창단과 성악가들의 하모니 속에서 행복한 얼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메트로신문 독자들을 위한 연말 인사도 전했다. 김동규는 "계절이 주는 의미대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부족했던 사람도 배려하면서 반성도 하고 새로운 계획도 세우는 연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병호기자

프로야구 FA 시장 2막 열려

둥지 떠난 11명… 88억도 거절한 장원준 행보 관심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2막의 문을 열었다.

올 겨울 FA를 신청한 9개 구단 19명의 선수 중 11명이 원 소속구단을 떠났다. 원 소속구단과의 협상 기한이 26일 자정을 기점으로 끝난 가운데 이번 FA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팀은 SK 와이번스와 삼성 라이온즈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다.

가장 많은 4명의 선수가 FA 자격을 얻은 SK는 올해 FA 시장의 최대어로 손꼽힌 최정(사진) 영입을 비롯해 김강민, 조동화 등 3명을 팀에 잔류시켰다. 삼성은 4명이 FA 자격을 얻었는데 선발투수 윤성환과 불펜의 핵심 안지만, 내야수 조동찬을 붙잡는데 성공했고 프랜차이즈 스타 배영수는 시장에 나오게 됐다. 롯데는 88억원 제안을 거절한 장원준이 시장에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SK는 원소속구단 협상 기간 총 164억원을 쏟아부었다. 특히 최정과는 4년간 총 86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42억원, 연봉 44억원에 모두 보장 금액이다. 원 소속구단 협상 마감시한인 26일 밤까지 김강민과 줄다리기를 벌인 SK는 결국 계약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김강민과 천분이 두터운 박경완 육성총괄까지 협상에 참여시킨 결과다. SK는 김강민에게 4년간 총 56억원을 제시했다. 계약금 28억원, 연봉 24억원에 옵션 4억원이다. 조동화에게도 4년간 총액 22억원을 안기고 계약에 성공한 SK는 FA로 풀린 5명 가운데 3명을 붙잡았다.

지난해 장원삼에게 4년간 60억원을 안기며 성공적으로 원 소속구단 협상을 마무리했던 삼성은 올해 174억원을 들여 역시 성공적으로 내부 단속을 끝냈다. 삼성은 윤성환과 4년간 총액 80억원에 계약을 마쳤다. 계약금 48억원에 연봉 8억원이다. 안지만은 계약금 35억원, 연봉 7억5000만원 등 4년간 총 65억원을 받고 삼성 잔류를 택했다. 이로써 삼성은 철벽 마운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멀티 내야수인 조동찬에게는 4년간 28억원을 제시했고 계약에 성공했다. 다만 국내 현역 최다승 기록을 보유한 베테랑 투수 배영수를 놓친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삼성은 26일 자정까지 배영수와 협상 테이블을 접지 않았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다.

가장 이슈를 모았던 팀은 단연 롯데다. 롯데는 좌완 선발 투수 장원준에게 4년간 88억원이라는 역대 최고 조건을 제시하고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장원준은 변화가 필요하다며 시장에 나가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길 원했다. 90억원에 가까운 돈을 포기하고 시장으로 걸어 나온 장원준은 자신감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장원준이 사상 최초 FA 100억원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한국 프로야구에선 FA 선수를 데려간 팀이 전 소속팀에 보상선수 1명과 해당 선수 전년도 연봉의 200%를 내줘야 한다. 보상선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보상선수 없이 전년도 연봉의 300%를 지불해야 한다. 이런 부담을 안고 장원준을 데려갈 팀이 어딜지 주목된다.

한편 FA가 두 명 뿐이었던 LG 트윈스는 프랜차이즈 스타인 박용택(오른쪽)은 4년 총 50억원 조건으로 붙잡았다. KIA 타이거즈는 송은범, 차일목 두 명 모두 잡지 못했다. 한화 이글스는 협상 마감시한을 얼마 남기지 않고 유일한 FA 김경언과 3년 총액 8억5000만원에 도장을 찍었고 넥센은 시장에 나가 평가받고 싶다는 이성열의 뜻을 존중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로써 원소속구단을 제외한 FA 2차 협상에는 총 11명의 선수가 나서게 된다. 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손흥민, 개인 골 기록 경신할까?

한 시즌 최다 12골에 '-1'… 29일 쾰른전 관심

주말의 스포츠월드

손세이셔널 손흥민(22·사진)이 리그 두 경기 연속 득점에 도전한다.

레버쿠젠은 29일 오후 11시30분(한국시간) 독일 레버쿠젠에서 쾰른과 2014-2015 분데스리가 13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손흥민은 지난 23일 하노버96과의 원정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며 리그 5호 골을 터뜨렸다. 그는 27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AS모나코전에서는 59분을 뛰며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 경기에서 5골을 넣은 것을 비롯해 챔피언스리그와 독일축구협회 포칼 등을 통틀어 11골을 넣고 있다. 자신의 한 시즌 최다 골 기록인 12골에 불과 한 골만을 남겼다.

이와 함께 이번 시즌 득점 1위인 마리오 괴체(바이에른 뮌헨), 알렉산더 마이어(프랑크푸르트)의 7골과도 2골 차이밖에 나지 않아 이날 골을 넣으면 단숨에 득점왕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

소속팀 레버쿠젠은 이번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레버쿠젠은 12라운드까지 5승5무2패를 기록해 승점 20점으로 리그 4위를 달리고 있다. 3위 보루시아 묀헨글라트바흐와는 승점은 같고 골 득실에서만 뒤져 있다. 2위 VfL 볼프스부르크와는 승점 3점 차밖에 나지 않아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선두권 싸움이 용이해진다.

한편 레버쿠젠은 27일 챔피언스리그에서 AS모나코에 패했지만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레버쿠젠은 27일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 아레나에서 열린 2014-2015 UEFA 챔피언스리그 C조 5차전에서 AS모나코에 0-1로 패배했다.

레버쿠젠은 승점 9(3승2패)를 기록, C조 1위를 지키며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그러나 같은 조 AS모나코(승점 8), 제니트(승점 7·러시아), 벤피카(포르투갈)와의 조별 리그 최종전에서 선두 굳히기에 나선다. /김학철기자

프로농구 전적					27일
모비스	24	15	21	14	74
KCC	18	22	18	11	69
전자랜드	21	13	20	24	78
LG	15	18	19	22	74
국민은행	15	14	17	18	64
하나외환	10	6	23	10	49

프로배구 전적			27일
IBK기업은행	2	3	도로공사
현대캐피탈	3	0	OK저축은행

지난 23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4 하나은행 FA컵 결승전 FC서울을 상대로 승리한 성남FC 선수들 /연합뉴스

성남, 강등권 싸움 마지막 사투

29일 부산과 경기… 선수 투혼·김학범 감독 지략에 명운

대한축구협회컵(FA컵) 우승으로 강등권 싸움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성남FC가 이번 주말 마지막 사투를 준비 중이다.

성남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2014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그룹 B(하위 스플릿) 마지막 38라운드 경기에서 부산 아이파크와 경기를 펼친다.

그 동안 성남은 시민구단으로 전환한 뒤 감독을 3번이나 갈아치울 정도로 어수선했다. 그러나 올 시즌에서는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프로축구판의 '주연'으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 23일 열린 FA컵 FC서울과의 결승전에서는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 끝에 우승컵을 거머쥐며 '명가 재건'의 첫 걸음을 극적으로 내디뎠다. 기세를 몰아 26일에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 원정에서도 승리해 10위(승점 37)로 한 계단 뛰어올랐다.

물론 아직까지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11위인 경남FC와의 승점 차가 단 1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부산전에서 무승부를 거둬도 같은 시각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열리는 경기에서 경남이 상주 상무를 꺾으면 다시 11위로 내려앉게 된다. 상주는 이미 챌린지(2부리그) 강등이 결정된 팀이기에 약체 반면 경남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크다.

성남은 반드시 살아남겠다는 선수들의 투혼과 김학범 감독의 지략에 명운을 걸고 있다. 올 시즌 단 3골에 그치며 침묵을 거듭하던 스트라이커 김동섭이 인천전에서 결정적인 쐐기를 박는 결승골을 꽂아 넣던 모습은 성남 선수들의 정신력을 잘 보여준다.

지난 2012시즌 후반기에 강등권에 머물던 강원FC를 맡아 14위로 잔류시킨 김 감독은 또 한 번의 '잔류 신화'를 준비 중이다.

/성병호기자 solanin@

ㅊ

첫운전

[First Driving]

어린이들이 직접 차를 운전해보며 교통안전을 배우는 곳이 있습니다
놀이처럼 쉽고 재미있게 교통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키즈오토파크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이 함께 합니다

{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통안전교육 활동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동참하는 현대자동차그룹 }

키즈오토파크

동행으로 미래를 펼치다

중심으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동행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HYUNDAI
MOTOR GROUP

"누구를 만나도 대화가 통하는 CEO"

사람이야기

■ 박상인 새로텍 대표

"30대 젊은이들과 영화를 보고 감상을 나누고 대만 사람을 만났을 때는 노자와 장자 이야기를 한다."

외장하드 미디어플레이어 업체 새로텍의 박상인 대표(63)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다. 6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물론 외국인까지 누구를 만나도 이야깃거리를 찾아내고 즐겁게 대화를 이어나간다.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게 된 것은 독서와 영화감상, 등산 등 다양한 취미를 통해 축적한 경험들 덕분이다.

박상인 대표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정혜인 기자 hyun1404@metroseoul.co.kr

여행·책·영화 등 통해 축적한 경험이 무기

그가 처음부터 취미 활동을 했던 것은 아니다. 박 대표는 "수십년 동안 휴식의 개념 없이 일했고 쉬는 날에는 잠만 잤다"며 "그때는 다들 그렇게 일하던 시절"이라고 설명했다. 제품 개발과 국내-외 수출까지 진행하면서 다양한 국가들을 방문했지만 항상 업무만 보고 돌아왔다. 그는 "당시에는 '해외 여행'이라는 개념도 없던 시절인 만큼 출장을 가더라도 인근 지역을 둘러볼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것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10여년 전 처음 '여행'을 목적으로 터키를 찾았을 때 문득 '삶의 질'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았다고 한다. 이전에도 출장을 목적으로 터키를 가본 경험은 있지만 여행은 완전히 다른 감흥이었다.

박 대표는 "휴양지를 찾기보다는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여행을 좋아한다"며 "이를 위해 여행을 떠나기 전 그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책과 영화를 본다"고 밝혔다. 시작은 유럽 여행을 위해 읽었던 성경과 그리스-로마 신화였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영화와 책을 많이 보게 됐다. 지하철을 탈 때도 시집을 들고 다니며 틈틈이 챙겨본다.

"특히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을 좋아한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인문학'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정신적 성장 중요해

최근 들어 사업과 경영에도 인문학을 접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사업은 사업이고 인문학은 인문학인데 이를 접목하라고 억지로 강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아무리 좋은 취지여도 인문학과 별개인 사업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새로텍의 직원들을 대하는 박 대표의 태도에서는 인문학적인 모습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온다. "일과 휴식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박 대표는 직원들에게도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자주는 아니더라도 등산, 영화 등을 함께 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고자 노력한다. 박 대표는 "나는 인문학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인문학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가 문화를 즐기는 것이 단순한 즐거움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는 "우리 사회는 고도의 경제적 성장은 이뤘지만 그만큼의 정신적인 성장도 중요하다"며 "자본주의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문화가 해결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람을 이해하는 태도를 갖춰야 사회가 더 인간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문화를 향유하는 연령층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내 또래들이 문화를 즐기고 이해할 수 있으면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존경 받는 어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표는 이제 은퇴를 고민하고 있다. 그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NGO에 들어가 사회에 보탬이 되는 활동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또 지금보다 더 많은 문화적인 활동을 하면서 즐기며 살고 싶다고 한다. 박 대표는 "인생의 목표는 책 3000권을 읽고 영화 3000편을 보는 것이지만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웃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젊은이들이 치열하게 살면서도 때로는 자신을 위한 휴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그리고 한국의 다른 노인들도 나처럼 즐겁게 살길 바란다"고 전했다.

백화점, 이색 연말 나눔행사

건강계단·LED기부 트리·복지시설 보수 등 다양

연말 연시를 맞아 국내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유통업계를 대표하는 백화점들도 예외는 아니다. 백화점 업계는 채널의 특성상 고객들이 쉽게 동참할 수 있는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는가 하면, 임직원들이 직접 나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행사에 앞장서고 있다.

먼저 대성산업이 운영하는 디큐브백화점은 지하철 1·2호선 신도림역이 연결되는 지하 2층에 걷기만 해도 기부금이 쌓이는 이색계단을 설치했다. 대성산업과 서울시 구로구가 손잡고 지난 8월 국내 백화점 가운데 유일하게 조성한 '걸으며 기부하는 건강계단'이다. 계단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이 곳을 고객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1인당 10원씩 기부금이 적립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30일까지 전국 13개 점포에서 '착한쇼핑 사랑나눔' 캠페인을 벌인다. 전 상품군에 걸쳐 327개 협력사가 참여하며 사랑나눔 마크가 붙어있는 상품을 구매하면 현대백화점과 해당 협력사가 판매액의 1%씩, 총 2%를 자동으로 기부하는 방식이다. 기부금은 협력사 이름으로 31개 관련 단체에 전달키로 했다.

디큐브백화점에 설치된 건강계단, 현대백화점 LED자선트리 | 사진제공

이 백화점은 구세군과 함께 서울 압구정본점과 무역센터점 등 2곳에 국내 최초로 '디지털 LED 자선 트리'를 운영하고 있다. '인터랙티브 조명 시스템'을 적용해 트리와 연결된 키오스크(무인단말기)에 현금을 넣거나 신용카드(후불카드 1000원씩 자감)를 접촉하면 트리에 설치된 LED 전구와 주변 조명물이 형형색색으로 변하며 화려해진다.

롯데백화점은 시설이 노후한 경로원, 어린이집을 매월 각 한 군데씩 선정해 리모델링해주는 '러블리 하우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지난 17일 '러블리 하우스(Lovely House) 1호'를 선보였다. 지은 지 40년이 넘어 노후한 데다 보일러 공사가 시급한 양천구 신월5동 소재의 '향천구립 수명경로당'의 내·외부를 수리했다. 백화점 측은 내년 말까지 러블리 하우스를 30호까지 늘리기로 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10월 DMZ 문화재단과 손잡고 영등포점에서 소외 계층 청소년을 위한 자선바자회를 열었다. 해당 수익금으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2박3일간 다문화·탈북청소년·자살위 계층 등 소외계층 청소년 32명을 대상으로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퍼스에서 올바른 진로개발과 꿈을 설계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진로캠프 STAND UP'을 열어 호평을 받았다. /정영일기자 aoro@metroseoul.co.kr

"내 커피는 내가 만든다"

'홈메이드족' 급증

최근 한끼 식사보다 비싼 카페의 고급 디저트를 즐기며 만족을 느끼는 '나를 위한 작은 사치'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고급 디저트의 높은 가격에 부담을 느낀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커피와 디저트를 나만의 취향에 맞게 직접 만들어 먹는 알뜰 '홈메이드족'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 AK몰이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최근 10개월간 20~30대 고객 385만 명의 구매 상품을 분석한 결과, 집에서 손쉽게 만들어 먹는 홈메이드 커피와 디저트 관련 아이템의 매출이 급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 커피 원두가루의 구매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5000건이 증가하며 16% 신장했다. 비교적 다른 커피보다 비싸고 우려내는 시간이 길어 '커피의 눈물'이라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는 더치커피의 경우 홈메이드 재료인 액상 더치커피의 구매 건수가 지난해 230건에서 2020건으로 급증하며 무려 9배나 신장했다.

홈메이드 제조 기계의 매출도 증가했다. 집에서 취향에 따라 원두커피를 내려먹을 수 있는 커피머신 상품군은 작년보다 평균 40% 증가했다.

한편 홈메이드 요거트 기계·아이스크림 제조기·과일빙수 등 디저트 조리기구군의 평균 신장률도 71% 증가했다. 홈메이드 디저트 재료 또한 브라우니믹스는 10%, 아이스크림믹스는 125% 씩 늘었다.

AK몰 측은 "최근 '작은 사치'가 유행하며 디저트 카페의 인기가 급상승하는 반면 밥값보다 비싼 고급 디저트에 부담을 느껴 본인의 취향에 맞게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알뜰 홈메이드족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AK몰에서는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홈메이드 디저트 관련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기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일기자

김치 생활 백서

한국인은 물론 세계인의 입맛까지 사로잡는 김치의 변신이 시작된다. 반찬의 개념에서 탈피해 양식에서 간식까지 아우르는 김치요리 3가지를 소개한다. /자료 제공: 메뉴판닷컴(www.menupan.com)

◆김치치킨도리아

분량: 2인분 / 난이도: 조보함임 / 열량: 662kcal / 조리시간: 40분

[재료] 닭고기 살 400g, 밥 1공기, 양파 1/2개, 배추김치 1/4개, 양송이버섯 2개, 피망 20g, 햄 70g, 토마토케첩 2큰술, 치즈 피자용 100g

[양념] 밀가루 3큰술, 버터·생크림 각 2큰술, 닭 육수 1컵, 소금·후춧가루 각 약간

1. 닭고기·채소·햄을 가로 세로 1cm 크기로 썬다.
2.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닭고기를 볶다가 ①을 넣어 볶는다.
3. ②가 어느정도 볶아지면 밥과 토마토케첩 2큰술, 소금·후춧가루로 간을 한다.
4. 팬에 버터를 녹이고 불을 약하게 줄인 다음 밀가루를 넣어 색이 나지 않도록 나무주걱으로 저어가며 볶다가 생크림 2큰술을 넣는다.
5. ④가 어느 정도 부드러워지면 닭 육수를 넣어가며 농도를 조절해 크림소스를 만든다.
6. 레인지용 그릇에 크림 소스를 깔고 ③의 볶음밥을 담은 다음 다시 소스를 끼얹고 다진 피자치즈로 위를 덮게 덮어 레인지에 넣어 굽는다.

◆김치피자

분량: 4인분 / 난이도: 보통 / 열량: 230kcal / 조리시간: 30분

[재료] 바게트 1/4개, 모짜렐라 치즈 100g, 신김치 1/5포기, 베이컨 2줄, 당근·피망 각 1/4개, 양송이 3개, 파슬리가루·식용유 각 약간 [양념] 소금·후춧가루 각 약간

1. 바게트를 1.5cm 두께로 어슷하게 썰어 프라이팬에 노릇하게 굽는다.
2. 달군 프라이팬에 베이컨을 채 썰어 먼저 볶고 김치·당근·양송이·피망도 채 썰어 함께 볶는다.
3. 바게트 위에 ②를 얹고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 180℃의 오븐에 넣고 7~10분간 굽는다.
4. 파슬리가루를 솔솔 뿌려 접시에 담는다.

◆김치핫도그

분량: 2인분 / 난이도: 보통 / 열량: 280kcal / 조리시간: 40분

[재료] 배추김치 50g, 햄 50g, 핫도그빵·계란 각 2개, 피망·양파 각 1/4개, 슬라이스 치즈 1장, 슬라이스 피클 6조각, 참기름·설탕 각 약간 [양념] 토마토케첩 약간

1. 배추김치는 속을 털어내고 국물을 짠 뒤 잘게 다져 설탕·참기름을 넣고 양념한다.
2. 피망·양파·햄은 곱게 다져 계란을 풀어 ①에 넣고 소금 간을 해 두께가 1~2cm가 되도록 부친다.
3. 핫도그빵은 아랫부분을 남기고 길이로 칼집을 준 후 프라이팬이나 오븐에 넣어 살짝 굽는다.
4. 구운 핫도그빵에 재료를 올리고 피클·치즈·토마토케첩을 넣어 마무리한다.

'블랙프라이데이' 판촉전 불붙다

<1면에서 계속>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도 동참하고 있다. G마켓은 28일까지 '슈퍼 블랙데이' 기간으로 정하고 최대 5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위즈위드 전 상품을 10% 할인 판매하고 있다.

옥션은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점의 인기 해외 직구 상품을 최대 70% 할인하는 '블랙 옥브라이데이' 행사를 28일까지 진행한다.

11번가도 30일까지 기획전을 열고 12월에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위메프의 위메프박스는 배송대행 서비스를 강화하고 배송비 이벤트 등을 벌인다.

◆패션업계도 관련 행사 봇물

국내 패션업체도 해외직구족(族)의 직접구매자들을 잡기 위해 대규모 할인 경쟁에 나섰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디젤은 25일 단 하루 전국 19개 매장에서 청바지와 일반 의류를 30~40% 할인 판매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평소 할인에서 제외됐던 조그진 등 다수의 인기 제품의 일부 품목이 포함됐다.

데님 캐주얼 브랜드 이스트쿤스트는 12월 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벌인다. 아이템별로 선착순 100명에게 최대 38% 할인가에 판매하며, 결제 금액의 50%를 적립금으로 돌려준다.

리본즈는 이달 말까지 지방시, 프라다 등 명품 브랜드 제품을 최대 70%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다.

이렇게 대부분의 유통 채널에서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펼치며 고객 몰이에 나서는 가운데 고객 소비심리를 악용해 물품대금만 챙기고 주문취소를 받지 않거나 반품·환불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도 당부되고 있다.

/정연우·김수정기자

휘슬러코리아 미혼모 지원 위한 '레드마마 모바일카페' 전달
독일 주방용품회사 휘슬러코리아가 27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구세군 두리홈 소속 미혼모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레드마마 모바일카페'를 한국구세군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어린이들과 방송인 박지윤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스포티즘 영향 '스니커즈' 열풍

송치·가죽·홀로그램 등 믹스 앤 매치 소재 인기

올봄 런웨이를 휩쓸었던 스포티즘 트렌드가 가을·겨울 시즌까지 이어지면서 '스니커즈'가 인기몰이 중이다.

특히 송치와 가죽의 매치, 러닝화에 주로 사용되는 메쉬 소재와 홀로그램 등 다양한 소재를 믹스해 포인트를 준 신발이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SPA 슈즈&백 브랜드 슈펜에 따르면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한 10월 말부터 각기 다른 소재가 적용된 스니커즈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지난달 출시한 슈펜의 신진디자이너 계이쿠(JKOO)와의 협업 제품인 '슬립온 쿠3(KOO III)'은 한 달 만에 완판됐다. 송치와 가죽을 활용한 스니커즈 '스완(Swan)'은 출시 5일 만에 리오더에 들어갔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슈펜은 홀로그램 포인트가 있는 슈즈 '마스트로' 등 스니커즈 3종을 추가로 출시했다.

블랙마틴싯봉도 이달 초 4가지 디자인의 믹스매치 스니커즈를 내놨다. 플랫 슈즈를 주력으로 선보이던 바바라 역시 벨벳, 스웨이드 소재의 스니커즈 라인을 새롭게 선보였다.

프리미엄 잡화 브랜드들은 독특한 스니커즈로 패션피플들을 유혹 중이다.

할리우드 스타일 브랜드 지니킴에서는 스웨이드 소재에 같은 톤의 홀로그램 가죽으로 포인트를 준 '브론즈'가 꾸준하게 팔리고 있다. 지니킴은 브론즈의 인기에 힘입어 이달 메시 소재와 가죽 콤비 스니커즈 '마스'를 공개했다.

지난 봄·여름 시즌 '스카이 시리즈'로 히트 친 슈콤마보니는 올가을 '베른 시리즈'로 믹스매치 소재의 스니커즈 트렌드를 이어가고 있다.

해외 명품 브랜드 스니커즈를 주력 제품으로 내세우고 있다. 올해 런웨이에서 화제를 모은 트위드와 홀로그램 콤비의 샤넬 스니커즈는 이미 일부 사이즈는 구하기 힘들 정도다.

슈펜 디자인팀은 "지난 시즌 슬립온으로 시작된 스니커즈 열풍이 겨울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올해는 특히 다양한 소재가 쓰인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가구업체 소품 취급 늘린다

이케아·글로벌 SPA 등과 경쟁 전략

가구 업계가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에 주목하면서 소품 취급을 늘리고 있다. 전에는 침대나 소파 등 고가에 무게가 나가는 상품을 주로 내세웠다면 최근에는 소품 브랜드를 별도로 수입하는 등 구색을 넓히고 있다.

패션업계가 불황 돌파구로 의류는 물론 생활용품까지 취급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자 라이프스타일 숍 시장에 가구 업계까지 뛰어들었다. 국내 생활용품 시장 규모는 2조 5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양한 소품류를 취급하는 이케아가 연말 광명에 문을 열고, 자라·H&M 등 글로벌 SPA 브랜드까지 이 시장에 군침을 흘리면서 이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사 소품 브랜드를 취급해 왔던 까사미아는 하반기에만 '블루밍빌레', '바닐라플라이' 등 4개의 수입 브랜드를 들여왔다. 자체 생산 소품 상품은 전 매장에서 판매 중이며 수입 브랜드는 물량 공급에 한계가 있어 일부 직영점에만 입점 되었다.

2003년 수입한 글로벌 브랜드 '시미'와 2010년 들여온 '시타디자인'이 대표 소품 브랜드다.

체리쉬는 최근 잠실 롯데월드몰점을 열면서 가구 대신 소품류를 전면 배치했다. 또 섬유산업이 발달한 대구의 지역적 특징을 반영해 리뉴얼된 대구직영점에도 패브릭류 라인이 늘어났다.

이 업체는 지난달 별기에 브랜드 '돔데코'의 생활소품 140여 점을 새롭게 출시했고, 지난 5월에는 몬프리 디자인과 독점 계약을 통해 카펫 컬렉션 '스워디 팝'을 론칭했다.

도무스디자인은 매년 일정 수량의 소가구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리 브랜드 퍼엄의 장식장 '밀로 사이드 보드'와 벽걸이형 거울 '알터 에고 거울' 등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소파나 침대와 같은 대형 가구 보다는 소형 가구나 소품 위주로 많이 구매하는 추세"라며 "이케아가 진출하고 패션 브랜드가 생활 소품을 출시하면서 가구 업계도 가구만 판매해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1000원짜리 편의점 커피 매출↑

가격 싸 인기… 업체들도 품질 높이기 경쟁

직장인 김모 씨(25·여)는 아침마다 편의점 커피를 즐겨 마시고 있다. 커피전문점의 아메리카노 한 잔이 4000원 대인 반면 1000원 대인 편의점 커피가 가격적인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편의점 PB 커피 매출이 늘고 있다. 미니스톱의 미니카페는 이달 들어 지난해 보다 매출이 20% 늘었다. CU에서는 11월 들어 핫델라페 아메리카노가 75.4%, 핫델라페 헤이즐넛이 94.7% 각각 전월 대비 매출이 증가했다.

직장인을 중심으로 PB 브랜드 커피 수요가 늘자 편의점은 품질 강화에 나섰다. 저렴한 가격만 내세워서는 커피전문점이나 타 편의점 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니스톱은 최근 미니카페에 '발포컵'을 도입했다. 친환경 폴프재료와 특수 코팅제품을 열처리해 컵 표면을 팽창 시켜 일반 종이컵보다 보온 효과가 높다. 미니스톱은 품질 강화 차원에서 편의점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이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여성 고객 대상의 새로운 메뉴를 추가해 현재 아메리카노·에스프레소 등 2종인 상품 구색을 넓힐 계획이다.

편의점 CU는 최근 에스프레소 추출액이 캡슐에 진공 포장된 형태의 '핫델라페' 제품을 출시했다. 버번블렌드 에스프레소 추출물을 베이스로 해 일반 믹스커피보다 진한 맛을 내고 기호에 맞게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어 음용하기도 편하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커피에 사용되는 원두의 질이 좋아졌고 불황 탓에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마시던 직장인들도 저렴한 편의점 커피를 많이 찾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뷰티업계, 연말 특수 노린다

보습제품 등 최대 50% 할인

뷰티업계가 연말을 앞두고 할인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겨울철은 거칠어진 피부 관리나 크리스마스 선물용으로 화장품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라며 "많은 업체들이 할인 행사로 연말 특수를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다음 달 7일까지 '네이처 멤버십데이'를 실시한다.

이 기간 전국 네이처리퍼블릭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조목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제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피부에 강력한 보습을 전해주는 '쉐어버터 스팀크림'은 반값에 선보인다. 10가지 자연 성분을 담은 '리얼 네이처 마스크 시트'는 10장 구매 시 10장을 추가로 증정한다.

더페이스샵 역시 다음 달 7일까지 12일간 베스트셀러 할인 행사를 벌인다.

전국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품목별로 20~50% 할인 판매한다. 베스트셀러 '빛나는 미감수' 클렌징 제품을 비롯해 클렌징 전 품목과 '수지 함수' 등 함수 전 품목에 50% 할인을 적용한다. 망고씨드 호인 윤기 데이브 버터 외 '씨앗 속의 씨앗 씨눈 에센스'를 30% 할인하며,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5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박지원기자

해외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연말이 다가오면서 색다른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색적인 크리스마스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해외의 크리스마스 축제를 소개한다.

◆여름에 크리스마스를?

지구 반대편 뉴질랜드에서는 온화한 날씨 속에서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만날 수 있다.

뉴질랜드의 최대 도시이자 여행자들의 관문인 오클랜드에서는 대규모 퍼레이드인 파머스 산타 퍼레이드(Farmer's Santa Parade)가 열리며 남섬과 북섬에서 각각 진행되는 '코카콜라 크리스마스 인 더 파크'는 뉴질랜드 최고의 크리스마스 축제다.

또 뉴질랜드 전역에서는 뉴질랜드의 크리스마스 트리라 불리는 '포후투카와(Pohutukawa)'의 향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조성된다. 포후투카와는 크리스마스 직전 주로 해안에서 붉은 꽃을 피우는데 특히 크로만델 반도에서는 포후투카와 축제가 동시에 개최된다.

◆동굴 속에서 신나는 축제를~

유럽의 미니어처라는 별명을 가진 슬로베니아에서는 크리스마스 동안 다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동굴인 포스토이나 동굴(postojna cave)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축제를 준비한다. 동굴 전체가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되며 내외 곳곳에서 은 성가대의 공연과 연극 등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뉴질랜드·유럽 등 이색적인 축제로 추억 만들기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랴나에서는 다음 1일부터 '페스티벌 페어(Festival Fair)'가 개최되고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콘서트와 함께 다양한 음식과 와인을 맛볼 수 있다. 더욱이 슬로베니아에서는 알프스의 자연미, 중세 도시의 매력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다.

◆서유럽에서 즐기는 크리스마스 마켓 투어

서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경험할 수 있다. 산타클로스가 살고 있을 것 같은 풍경 속에서 앙증맞은 수공예품과 동나무 노점상은 물론 크리스마스 대표 음식과 와인 등을 즐길 수 있다.

그중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는 크리스마스 마켓의 기원을 찾아갈 수 있다. 16세기 수도승들이 전나무를 팔던 자리가 마켓의 기원으로 전해지며 전나무를 장식하는 문화와 400년이 넘은 마켓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벨기에에서는 양초·트리용 스노우볼 등 크리스마스에 빠질 수 없는 장식용품이 대거 등장한다.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벨기에산 초콜릿도 현지에서 맛볼 수 있으며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아이스링크와 관람차 등의 놀이기구도 재미를 더한다.

아울러 참좋은여행 등의 국내 여행사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중심으로 일정을 짠 크리스마스 상품을 선보이고 있어 편안한 여행도 가능하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겨울여행 혜택이 팡팡!

외항사, 연말 맞아 다양한 할인

최근 항공사들이 다가오는 겨울을 맞아 여행을 계획하는 여행객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먼저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은 사전에 발권하는 고객에게 최대 20%를 할인한다. 출발 1개월 전 발권 시에는 10%, 2개월 전 발권 시에는 15%의 혜택이 주어지며 3개월 전에 발권하면 20%가 할인된다. 또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좌석을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다.

에티오피아항공은 내년 5월 30일까지 수요일과 일요일에 출발하는 홍콩 항공편에 한해 왕복 항공권을 14만5000원에 제공한다. 출발일로부터 7일 전에 발권하면 7%가 추가로 할인된다.

카타르항공은 유럽으로 떠나는 고객을 위해 내년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출발하는 파리 왕복 항공권을 96만3000원부터, 지금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출발하는 런던 왕복 항공권은 109만8200원부터 판매한다.

싱가포르항공은 다음 달 31일까지 싱가포르와 인도를 여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특가 요금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이코노미석을 기준으로 싱가포르 왕복 항공권은 51만6500원, 인도 델리 왕복 항공권은 104만7400원이다. 여행기간은 28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다. /황재용기자

여의도는 지금 뷔페 삼국지

63빌딩 파빌리온 등 뷔페 트라이앵글 갖춰져

1970년대 말 호텔에서 시작된 뷔페는 현재까지 성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좋은 식재료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콘셉트를 선보이거나 트렌드에 맞는 음식으로 고객을 유혹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여의도에서는 지난달 신세계푸드가 한식뷔페 '올반'을 오픈하면서 뷔페 삼국지가 시작됐다.

먼저 여의도에서 30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63뷔페 파빌리온이 있다. 63빌딩 지하 1층에 위치한 프리미엄 뷔페 레스토랑으로 트렌드에 맞는 메뉴들을 통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외 시장 조사를 거쳐 조리장들이 끊임없이 메뉴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에는 '세계요리 축제'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 12월 말까지는 'Special Thanks 2014 Best of the Best' 행사를 통해 올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올반은 '올바르게 만들어 반듯하게 차린다'를 줄인 말로 품격을 높인 한식을 대중화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유통기업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지정 농장을 구축하는 등 좋은 식재료 조달에 힘을 모으고 있다. 박종숙 요리연구가의 컨설팅을 통해 메뉴를 개발했으며 궐반 주부를 패널단으로 구성해 맛과 서비스 등을 다각도로 검증했다.

여의도에 있는 콘래드 서울(Conrad Seoul)의 뷔페 레스토랑 '제스트'는 4개의 오픈 키친에서 동서양의 진미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오픈하면서 만나기 어려운 유명 셰프와 시공 없게 대화하며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입소문이 나 뷔페전쟁에 참여하게 됐다. 시즌 별로 고가의 재료를 이용한 특급요리를 선보이거나 각종 패키지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고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넓은 공간과 부드러운 조명이 주는 편안한 럭셔리함이 강점이다. /황재용기자

공항서 도심이 가까운 곳은?

호주 시드니가 세계 주요 도시 중 공항에서 도심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호텔 예약 사이트 '호텔스닷컴'은 여행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해외여행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주요 20개 도시를 대상으로 공항에서 도심까지의 거리와 교통수단의 평균 요금을 조사해 최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시드니 도심에서 공항까지 거리는 8.05㎞에 불과했다. 또 멕시코시티(11.27㎞)와 베를린(12.87㎞)이 그 뒤를 이었으며 더블린과 보고타의 도심도 공항에서 15㎞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공항에서 가장 멀리 있는 도시는 도쿄(70.81㎞)였다. 서울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57.94㎞인 것으로 나타나 도쿄 다음으로 먼 거리다.

아울러 리무진과 셔틀버스의 평균 요금이 저렴한 도시는 ▲방콕(2103원) ▲멕시코시티(2359원) ▲베이징(4115원) ▲싱가포르(7432원) 등이다.

▲보고타(7377원) ▲방콕(8089원) ▲베이징(1만9047원) 등의 도시에서는 택시를 타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도심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도시인 홍콩은 도심까지의 거리가 40.24㎞, 택시요금이 4만106원이었으며 도쿄는 택시를 타고 20만1190원을 지불해야 도심에 도착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펠레·마테우스 등 전설들이 뛴다

한층 재미있는 '피파 온라인3'에 관심 집중 클럽 시스템·승강제 도입… 겨울 시장 후끈

넥슨이 서비스하는 인기 온라인 축구 게임 '피파 온라인3'의 겨울 시즌 계획에 팬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브라질 월드컵이 개최된 지난 여름 역대 최고의 점유율을 보였던 피파 온라인3는 어떤 업데이트를 통해 겨울에도 여름 열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2014 개막 직후 25일 열린 기자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올겨울 피파 온라인3 운영 전략과 이용자 반응을 살펴본다.

올겨울 피파 온라인3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설의 축구 스타 대규모 업데이트다. 피파 온라인3는 12월 4일 1차 업데이트에서 펠레(브라질), 베르캄프(네덜란드), 셰브첸코(우크라이나), 마테우스(독일), 비에이라(프랑스) 등 굵직한 축구 선수 11명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설의 축구 스타 업데이트는 앞으로 네 차례에 걸쳐 총 41명의 선수들을 소개한다.

피파 온라인3 겨울 업데이트 행사에서 프로게이머 김민재와 박준효는 전설의 축구 스타 시연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김민재 선수는 "펠레 덕분에 두 골을 넣었다. 펠레 신장이 작아 걱정됐지만 몸싸움과 골 결정력 모두 뛰어나게 게임으로 구현됐다"고 말했다. 박준효 선수는 "베르캄프를 추천하고 싶다. 공격형 선수의 명성을 게임에서 고스란히 체험할 수 있었다"고 호평했다.

한편 올겨울 피파 온라인3에서는 다양한 클럽이 다수 생성될 전망이다. 이용자끼리 팀을 구성해 축구 경기를 펼치는 클럽 시스템은 클럽 구성원들이 선수를 관리하고 성장시키는 매니지먼트 콘텐츠다. 이용자들은 '용병 이적시장', '용병 훈련소' 등 다양한 클럽 시설을 건설해 선수를 영입하거나 개인 보유 선수들을 훈련시켜 축구팀을 경영할 수 있다.

하지만 팀 플레이 강화 정책에 대해 피파 온라인3 이용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혼자 피파 온라인3를 즐기는 이용자들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넥슨 관계자는 "클럽 시스템은 이용자들의 장기적인 피파 온라인3 플레이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팀원 없이 혼자 경기를 펼치는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온라인 게임 이슈로 떠오른 승강제가 피파 온라인3에도 도입된다. 승강제는 이용자들의 경쟁심과 긴장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피파 온라인3에서는 기존 2주간 진행하던 '순위경기' 시즌이 한 시즌당 12주간의 장기 진행으로 변화한다. 이 과정에서 승강제가 적용된 것이다. 이용자는 시즌 직전 진행되는 '등급 배치전'을 통해 등급과 세부그룹이 결정된다. 이후 시즌 진행에 따른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별 최상위 혹은 최하위권에 도달 시 3판2선승제의 승급전과 강등전이 열린다. 승급전과 강등전은 이용자들의 그룹 내 점수와 내부 산정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이용자는 자신과 대결을 펼치는 경쟁자의 승급전, 강등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피파 온라인3를 총괄하는 이정헌 넥슨 사업본부장은 "대대적인 콘텐츠 개편과 새롭게 바꾼 e스포츠 리그를 통해 이용자들의 피파 온라인3 겨울을 뜨겁게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개발을 맡은 윤세훈 스피어헤드 본부장은 "피파 온라인3 개발의 주 목적은 이용자들이 열광하는 콘텐츠 발굴"이라며 "이번 겨울 업데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견을 꾸준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un.eun@metroseoul.co.kr

공룡 캐릭터 요시 주인공 첫 등장

요시가 주인공으로 처음 활약하는 닌텐도 3DS 소프트웨어 '요시 뉴 아일랜드'가 출시된다.

한국닌텐도는 슈퍼마리오 시리즈의 인기 공룡 캐릭터 요시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요시 뉴 아일랜드'를 12월 4일 정식 발매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게임은 마귀에게 붙잡힌 아기 루이지를 구하기 위해 요시가 아기 마리오를 등에 업고 대모험을 떠난다는 줄거리다. 모험의 무대는 울창한 숲 속, 눈 쌓인 겨울 왕국, 위험한 화산으로 구성된 50종류의 '에그 아일랜드'다.

요시들은 '알'을 던지며 적을 무찔러야 한다. 특별한 아이템 '요시스타'를 먹으면 요시는 '슈퍼요시'가 되어 장애물을 거침없이 부수며 진격할 수 있다. '파이어 수박'을 먹으면 불을 내뿜으며 적을 공격하고 얼음을 녹이는 힘을 갖는다.

한편 '요시 뉴 아일랜드'에는 '얼음이 째기', '적을 꿀꺽 삼켜라!' 등 총 6종류의 미니 게임이 있다. 닌텐도 3DS 시리즈 본체가 2대 있으면 소프트웨어 1개만으로 이용자 두 명이 함께 요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요시 뉴 아일랜드' 정식 발매일은 12월 4일로, 희망소비자가격은 4만4000원이다. 같은 날 '다운로드 버전'도 함께 출시된다.

/장은희기자

조이시티 모바일 게임 8각 편대 "붕"

쥬쥬히어로·워쉽배틀 등 글로벌 겨냥 신작 공개

모바일 게임 개발사 조이시티가 신작 모바일게임 8종을 앞세워 글로벌 공략에 나선다.

조이시티는 27일 경기도 분당의 조이시티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모바일 전략과 자체 개발·퍼블리싱 신작으로 구성된 모바일 게임 라인업을 발표했다.

이날 서비스에 들어간 캐주얼 비행슈팅 게임 '쥬쥬히어로'는 개성 강한 캐릭터와 엉뚱한 스토리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캐주얼 장르의 쉽고 간편한 게임 방식을 선택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 과일 아이템을 먹는 재미와 특공 비행 랭킹 시스템 등으로 게임의 재미를 더했다.

2500만 다운로드에 빛나는 '건쉽배틀'의 정식 후속작 '워쉽배틀'은 첨단 3D 액션 게임이다. 해상 전투의 박진감을 뛰어난 그래픽으로 재현해 낸 것이 장점이다.

한국의 정취를 담은 스타일리시 액션 RPG '프로젝트 RG(가제)'도 액션 무협활극 '달과 그림자' 개발팀 후속작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날 최초로 공개된 캐주얼 보드게임인 '주사위의 신'도 눈길을 끌었다. 주사위의 운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기존 주사위 보드 게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 요소를 추가한 것이 장점이다.

이밖에 몬스터를 수집하고 육성하는 전략 배틀 RPG '던전브레이커즈', 색채풍 그래픽이 인상적인 전략전쟁 RPG '아크스톤', 하드코어 유저층을 공략한 3D 액션 RPG '라스트드래곤', 스토리 액션 RPG '하프템러드' 등도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무기로 주목받았다.

조성원 조이시티 대표는 "오늘 선보인 게임들을 내년 3분기까지 자체 플랫폼인 '조이플(JOYPLE)'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라며 "조이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페이스북, 트위터 아이디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다 RPG, 액션, 비행 슈팅 등 다양한 장르를 마음껏 즐길 수 있어 글로벌 이용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정부3.0

청춘을 응원하는 당신의 기부, 기분좋은 보람이 되어 돌아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꿈과 희망의
자유로운 날개를 접은 대학생들
당신의 기부가 그들의 희망날개가 되어
사회의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기부 활동 분야

기부절차

① 약정하기
- 온라인 기부
- ARS소액기부
- 우편/팩스/이메일약정

② 납부하기
- 방문 및 전화 상담

③ 확인증 발급

① 온라인 기부 (www kosaf go kr)

② 전화약정 02-2259-2028 2021 02-2259-2621 2622

③ 팩스/이메일/우편
- 팩스 02-2259-2159
- 이메일 gift@kosaf go kr
- 우편주소 서울시 중구 한국장학재단 기부금 담당자

④ 무통장 입금
- 신한은행 100-025-420820
- 기업은행 037-076308-01-146
- 우리은행 1005-601-531623
- 외환은행 630-008641-710
- 하나은행 175-910011-87604

(예금주 한국장학재단)

⑤ ARS 소액기부 060-700-1003 (한 통에 2천원)

※ 한국장학재단은 국가 법정기부금단체입니다 (2011년 7월 지정)

볼 권리 침해하는 지상파

기자 수첩
전효진
<연예스포츠부 기자>

지상파 3사(SBS·KBS·MBC)에 사업 방향이 시청자의 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KBS는 내년부터 단막극 편성을 축소하고 MBC는 시사교양국을 폐지했다. SBS·MBC는 유튜브에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기로 해 국내 이용자의 불편이 예고된다.

KBS는 일요일 자정 방영되는 드라마 스페셜을 내년 1월부터 금요일 오후 10시에 편성한다. 올해 26편이던 단막극 제작 편수도 15편으로 줄여 KBS PD협회는 사실상 폐지라고 반발하고 있다. 단막극 축소는 문화의 다양성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공영 방송 KBS의 역할을 의심하게 하는 방침이다.

MBC는 지난달 27일 교양제작국을 폐지했다. 다큐멘터리는 편성제작본부 산하 콘텐츠제작국, 교양은 예능본부 산하 예능1국 제작 4부로 이관됐다. 교양 PD들은 비제작부서로 전출됐고 제작 여건은 더욱 어려워졌다. 시사교양국 폐지로 MBC는 공영 방송 포기의 길을 자초했고 사회 감시 기능 약화의 책임을 지게 됐다.

SBS와 MBC는 영상 콘텐츠를 두고 유튜브와 갈등하고 있다. 이들은 유튜브와의 협상을 통해 수익 배당률을 더 높이려다 뜻대로 되지 않아 콘텐츠 제공 중단 카드를 꺼냈고 국내 포털사이트로 눈을 돌리고 있다. 문제는 내달 1일부터 국내에서만 유튜브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이다. 지상파가 자국민을 차별한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공공성은 지상파 방송사의 책임이자 의무다. 다채널 시대에 방송의 상업성은 더 두드러지고 있지만 시청자가 지상파에게 양도한 기본적인 사회적 역할은 변해서는 안된다. 사업성과 공적 가치 중 지상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돌아볼 시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4 창조경제 박람회 기술금융전시관을 방문해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새 성장엔진은 창조경제"

박 대통령 "창업 생태계 활성화위해 규제 개혁… 맞춤형 투자지원 확대"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오전 '2014 창조경제박람회'에 참석해 "저성장의 무기력한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아야 하는데 그 답이 창조경제"라며 "정부정책과 벤처 창업기업인의 노력이 어우러져 창조경제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창조경제박람회는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21개 정부 부·처·청과 11개 경제단체가 공동주최한다. 중소기업청 벤처창업박람회와 통합 개최, 금융위원회의 기술금융 사인과 설명 등 각 부처·지자체의 참여, 대기업(13개)과 스타트업(640여개) 참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행사내용과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27일 개막식과 함께 ▲일반 국민, 스타트업 등의 창의적 제품·서비스 ▲대기업의 혁신기술과 상생사례 ▲정부부처·출연(연) 금융기관 등의 지원정책 등을 소개하는 전시관(C, D홀) ▲스타트업 네트워킹 IR·각종 컨퍼런스·포럼·세미나 등 부대행사로 구성됐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세계경제가 저성장의 무기력에서 탈출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OECD 회원국 성장전략 중 최고로 평가받는 등 우리의 창조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있었다"며 "창업-성장-회수 재투자의 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R&D 투자가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한편 신제품과 비즈니스로 구체화돼 중소기업의 든든한 조력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개막식 직후 청년창업가인 김용재 대표(남·37세·교육 솔루션 업체)와 김용경 대표(여·33세·영어교육 업체)의 안내로 전시관을 둘러봤다.

/김태균기자 ksc1@metroseoul.co.kr

새누리, 인사청문 이원화·기간 연장 추진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TF는 인사청문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TF는 27일 국회에서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위원장인 김윤석 의원이 밝혔다.

TF가 이날 마련한 최종안에는 ▲인사청문 기간 확대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의 이원화 ▲도덕성 검증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다양한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보다 심도 있는 인사청문을 위해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리고, 청문회는 5일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인사청문 제도를 이원화해 정책 검증은 전체회의를 통해 공개 실시, 도덕성 검증은 관련 소위를 구성해 원칙적으로 비공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개 진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더욱 충실한 인사청문 활동을 위해 공직 후보자의 열람동의한 첨부 서류 외에 청와대의 사전 인사검증 자료와 후보자가 직접 기술한 자기진술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했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이완구 "野의 법인·담뱃세 연계 수용 못해"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담뱃세 인상의 조건으로 법인세 인상을 내건 데 대해 "법인세 문제를 담뱃세 인상과 연계시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7일 "지금 야당은 교환하자는 얘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같은 기준으로 놓고 담뱃세와 법인세 문제를 같이 연계해서 판단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러 극동개발부 장관 방한 · 경제협력 논의

● 남·북·러 3국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시범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27일 방한했다. 그는 28일까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남·북·러 협력 사업 등 경제 협력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정은 여동생 여정, 정권 핵심 실세로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노동당 부부장 직함을 갖고 김정은 체제의 핵심 실세로 급부상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 제1위원장의 4.26만화영화촬영소 방문을 수행한 김여정을 '노동당 중앙 위원회 부부장'이라고 처음 공개했다.

"여야 합의 안돼도 예산안 시한 내 처리"

정의화 의장, 예결위원장 등과 회동서 밝혀

정의화 국회의장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사일정 거부로 심의가 중단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여야 간 합의가 안되더라도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 의지를 밝혔다.

정 의장은 27일 국회의장실에서 예결위원장인 새누리당 홍문표 위원장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과 만나 "합의가 안 되더라도 저로서는 진짜 국민과 맺은 약속"이라며 "당연히 헌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법정시한내 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이런 안 시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지나서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박힌 것 같다. (그런 인식이) DNA가 되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번을 출발점으로 해서 12월 2일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전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예결위 정상화라는 큰 틀에 공감하면서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7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홍문표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회동을 갖고 취재진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학재 의원, 홍문표 위원장, 정의화 의장, 이춘석 의원. /연합뉴스

한편 여야는 이날 예산 심사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담뱃세 증세 문제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즉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 갈등으로 이틀째 파행 운영되온 국회는 이로써 부분적으로나마 정상 운영 체제로 복귀했다. 누리과정 순증액의 국고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중앙정부가 우회 지원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조현정기자

<당진공장>

현대제철 산재 은폐 '최다'

사업장 294곳 공개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가장 많이 은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작년에 산업재해율이 높았거나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한 사업장 등 294곳을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공표했다.

2011년부터 3년간 산재 발생 보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으로는 현대제철 당진공장(20건)을 비롯해 비나커(13건), 광우개발(10건) 등 21곳이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한 사업장은 월군토건(재해율 10.00%), 유성기업 영동공장(9.16%), 풍생(6.67%), 문경시청(자활순환센터)(6.40%) 등 254곳이었다.

사망사고가 잦았던 사업장으로는 2013년 7월 수몰사고로 7명이 사망한 동아지질(중흥건설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하청업체), 2013년 3월 폭발사고로 6명이 숨진 유한기술(대림산업 여수공장 하청업체), 2013년 5월 가스 질식사고로 5명이 사망한 한국내화 당진공장(현대제철 당진공장 하청업체) 등 15곳이 포함됐다.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유한기술(대림산업 여수공장 하청업체), 삼성정밀화학 등 4곳이 포함됐다. /윤주영기자 bsa@metroseoul.co.kr

중요범죄 신고 보상금 5000만→5억원 추진

경찰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기존 최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수배할 때 유씨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5000만원으로 걸었다가 사안에 비해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여론이 일자 경찰청장 직권으로 5억원으로 올린 바 있다. 경찰은 이를 계기로 보상금 상향을 검토해 왔다.

그동안 3명 이상 살해한 범죄자를 신고하면 보상금이 최대 5000만원이었다.

경찰은 이 항목을 '3명 이상을 살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피해가 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검거가 요구되는 사건의 범죄자를 신고했을 때'로 수정하고 보상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5억원은 기존 훈령에 기재된 신고 보상금의 최고 금액이다.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되던 2인 이상 살해 등 범죄 신고 보상금은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보상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간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범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 학교폭력은 최대 5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주는 규정이 신설된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다음 달에 열리는 경찰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을 통과하면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유주영기자

잿더미로 변한 화개장터 27일 오전 2시30분 경남 하동군 화개면 화개장터에서 불이 났다. 불은 초가지붕으로 된 건물과 판매 점포 80개 가운데 41개를 태워 1억8000만원(경찰 추산) 상당의 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관 등에 의해 58여 분만에 진화됐다. 사진은 잿더미로 변한 화개장터 화재 현장. /연합뉴스

내년부터 운전면허 따기 어렵다

경찰청 기능시험 강화

내년부터 운전면허를 따는 것이 다소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27일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 6월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을 마련해 기능시험 항목을 대거 축소했다. 과거에는 T자와 S자 주행, 평행주차 등 다소 까다로운 항목들이 많았지만 현행 기능시험은 직선 주행에 자동차 기기 조작 등 간단한 내용으로만 구성돼 있다.

직진만 할 줄 알면 되는 정도의 실력만 있으면 기능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서인지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1년 7426건에서 2012년 9247건으로 24.5% 증가했다. /유주영기자

미 공병단·국립의료원 부지 특별구역 지정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이 새롭게 정비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이 일대는 동대문 의류상가와 봉제·패션 산업이 밀집해 외국인 등 방문객이 많고, 미공병단과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하면 대규모 부지가 생긴다.

위원회는 대규모 부지 이전에 미리 대응해 지역의 기존 산업과 문화 역사가 공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미공병단과 국립중앙의료원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광희동, 신당동 지역은 기존의 도심 서비스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최대개발 규모와 높이 등 건축기준을 결정했다.

광희동 일부 주민이 요구하는 정비사업의 특별계획구역 지정은 공공시설 확보와 역사문화자원 보존 등 공공 기여를 전제로 허가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종로구 낙원동 134-2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16층 객실 249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짓는 계획도 통과시켰다. /윤주영기자

5분만에 금은방 턴 강도 검거 서울 서부경찰서는 대낮에 금은방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셔터를 내린 뒤 5분 만에 금목걸이 금반지 등 귀금속 시가 1억8000만원 상당을 턴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은평구 녹번동 서부경찰서에 놓여있는 증거품. /연합뉴스

올해 '탑건'에 F-15K 고대산 소령

공군은 올해의 최고 조종사(탑건)에 제11전투비행단 F-15K 전투조종사인 고대산(35·공사 50기·사진) 소령이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고 소령은 지난해 10월 6일부터 1년간 공군 작전사령부가 주관해 실시한 '2014 보라매 공중사격대회'에서 1000점 만점에 1000점을 받으며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보라매 공중사격대회에 지금까지 세 차례 참가한 고 소령은 지난 2009년 대화력전 분야 최우수 조종사로 공군참모총장상을, 이듬해에는 종합 최우수 조종사로 국방부장관상을 각각 받기도 했다.

고 소령은 "F-15K는 복좌 전투기라서 팀워크가 특히 중요한데 우리 편조가 최고의 팀워크를 발휘한 것 같다"면서 "역할을 나눠 대회 관련 데이터와 기술, 그동안 반복됐던 실수들을 정밀하게 분석해 정리해 놨던 일종의 실수 노트인 'ACE 노트'가 비결"이라고 말했다.

서울 출생인 그는 2002년 공사 50기로 임관, 비행교육을 마치고 2004년 11전투비행단에 배속돼 F-4D 조종사로 전투비행대대 생활을 시작했다. 2006년 10월 F-15K 조종사로 선발됐으며 현재는 F-15K 무기체계와 최신 전술의 실전 적용 방안을 대대원들에게 교육하는 교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유주영기자

한국장학재단 '인터넷 소통행정' 대상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26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인터넷소통대상-소셜미디어 대상'에서 준정부기관 소통행정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상은 미래부 산하 한국인터넷소통협회 주관으로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2012년 준정부기관부문 대상, 2013년 소통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해 올해로 3년 연속 수상하게 됐다.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인터넷소통대상에서 한국장학재단(가운데 김대진 홍보팀장) 관계자가 소통행정 대상 수상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고유 캐릭터로 친근한 소통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생활 콘텐츠의 활용 △온라인 문의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유주영기자

metro 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Peru | metro Russia | metro France | metro HongKong

metro Russia

В аэропорту показали отрывок из балета

공항서 깜짝 발레 공연 승객 '환호'

최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풀코보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던 승객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항에서 발레 공연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공연을 펼친 이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리스 에이프만 발레단의 무용수였다. 플래시 몹 형식으로 짧게 공연을 펼쳐 기다리던 승객들에게 깜짝 선물을 한 것이다. 승객들은 이런 공연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며 발레 공연에 환호했다.

metro France

Loire : ils éventrent le mur d'u pour voler le coffre

FAIT DIVERS L... Loire ...

지게차로 벽 부수고 금고 털어

최근 프랑스에서 금고를 훔치기 위해 맥도날드의 벽을 부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강도들은 지게차를 이용해 르와르 지역 맥도날드 매장의 벽면을 부쉈다. 그들은 지게차를 몰고 와 금고를 탈취한 후 지붕에 싣고 달아났다. 금고 안에 들어있는 금액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보통 매장 직원은 금고를 직접 관리하지 않으며 회사의 은행 차량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금고를 비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페'로 불릴때 가장 행복해

세계서 가장 가난한 우루과이 대통령 '무소유 퇴임'…나라 살림은 '부자'

유일한 개인 재산이 34년된 폭스바겐 비틀 자동차 한 대인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꼽힌다. 무소유의 삶을 추구하지만 나라 살림을 살찌워 국민을 챙기는 데는 둘째가라면 서럽다. 내년 2월 퇴임을 앞두고 있는 그를 최근 메트로 페루가 만났다.

-지난 5년 간 우루과이 살림을 정리해 본다면.

먼저 빈곤율을 대폭 낮췄다. 10년 전에는 30%에 육박하던 빈곤율이 지금은 11% 정도다. 극빈층의 비율도 0.5%로 줄었다. 우루과이 국민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1만7000 달러로 증가했고, 실업률은 10년 전 22%에서 현재는 5% 안팎이다.

-재임기간 업적 중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시골 지역의 노동 환경 문제다. 1일 8시간 근로기준법을 적용했다. 농업·목축 국가인 우루과이에서 농부 등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사회 정의와 직결돼 있다. 가장 중요하지만 잊혀져 왔던 분야에서 성과가 있어 기쁘다.

-마리화나 합법화는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국제적인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다. 각국에서 워낙 민감한 이슈이니 그렇게 된 것 같다. 마리화나 합법화는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루과이 국민을 마약밀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루과이는 중남미에서 가장 개혁적인 국기다. 이유가 뭔가.

가장 세속적인 국가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처럼 종교의 압박을 크게 받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진보적인 정권이 많았다는 점도 이유다. 여성 참정권 부여, 주류 판매 정부 관리 등 파격적인 정책이 지금의 우루과이를 만들었다.

-재임 중 낙태 합법화 논란이 대했서는 어떻게 대응했나.

낙태 자체에 찬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가 생명을 없애고 싶겠나. 다만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해 여러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우루과이를 국제 무대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곤 하더라. 하지만 그건 낭선주의적 시각이다. 한 사람의 힘으로 국가를 바꿀 수는 없다.

-게릴라로 활동하던 시절 4㎡짜리 독방에 갇혔었다.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상상한 적 있나.

꿈도 꿔본 적 없다.

-인생관이 있다면.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는 것. 꼭 필요한 것만 소유하면 부질없는 것에 삶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무소유와 희생을 통해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삶. 진정으로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이 아닐까.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얻은 것이 있다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애정이다.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나를 '페페'(호세의 애칭)라고 부르며 반긴다. 대통령으로 일하면서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세고 헤레스 기자 · 정리=조선미기자

metro HongKong

롤스로이스 30대 중국 갑부 결혼식 358억원 퍼레이드

중국 갑부가 358억원짜리 초호화 웨딩카 퍼레이드를 벌여 화제다.

최근 허베이성 탕산시에서 500m 길이의 긴 웨딩카 행렬이 이어졌다. 빨간색 페라리를 선두로 고급 오토바이와 롤스로이스 팬텀 30대가 뒤따랐다. 이번 행렬에 사용된 롤스로이스 팬텀의 대당 가격은 680~800만 위안(약 12억2000만 원~약 14억3000만 원)이다. 웨딩카 행렬의 차 가격은 모두 합치면 2억 위안(약 358억 원)이 넘는다.

행인들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행렬을 지켜봤다.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에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도 많았다.

이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은 류(劉)모씨로 아버지가 현지에서 유명한 사업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식은 쉐위안로의 고급 호텔에서 열렸다. 평균 가격이 1만 위안하는 테이블 100개가 놓여졌다. 하객 수는 1000명을 넘어 호텔 1층부터 4층까지 모두 가득 찼다.

결혼식 현장에는 스타들도 함께 했다. 유명 아나운서인 리샹(李湘)이 사회를 봤고, 류넘(劉楠) 자오쓰(趙四) 리링위(李玲玉) 등 많은 연예계 스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네티즌들은 "정말 대단한 결혼식이다" "돈이 좋긴 좋구나" "돈을 과시하는 게 목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리=조선미기자

'아이폰6 대란' 이통3사 임원 고발

방통위 "재발 때는 CEO도 책임 물을 것"… 내달 시장감시단 운영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발생한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관련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통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를 의결해 왔지만 이통사와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 3사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 고발 대상 임원은 구체적인 인물을 특정하지 않고 장려금 지급에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 정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 3사와 임원을 형사고발함으로써 제대로 된 수사권을 가지고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검찰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 폭넓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동 3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 회의적이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CEO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저녁에서 2일 새벽사이 서울 왕십리·사당·일산 연천동지에선 아이폰6 16GB 제품이 10만~20만원대에 편법 판매됐다. 해당 휴대전화 유통점에는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들 유통점에서는 이통사로부터 받는 휴대전화 판매장려금을 페이백 형태로 고객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이통 3사 담당 임원을 소환해 사실조사에 나서는 한편,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대리점·유통점·판매점 44개를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들이 보전한 1298명의 가입자 중 540명에게 공시 지원금 27만2000원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아이폰6와 관련해서는 426명의 가입자에게 공시 지원금을 평균 28만8000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통법은 이통사가 유통점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시·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법 제9조 제3항)하고 있다. 이통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그동안의 사실조사 등을 토대로 이날 즉각 형사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방통위의 결정은 단통법 시행 초기 불법 보조금을 강력하게 뿌리뽑지 않으면 법 시행 취지 자체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기존처럼 주도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은 없을 전망이다. 조사기간에 짧고 조사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주도 사업자가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2기 방통위에서 법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가중처벌했는데 단통법 시행 이후 상황이 변했다"면서 "향후 이에 대한 논의도 방통위 내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단통법 위반에 대한 이통사의 제재 방침도 다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차재성기자 ry0483@metroseoul.co.kr

market index <27일>

코스피	1982.09	(+1.25)
코스닥	545.47	(-1.37)
금리	2.11	(+0.01)
환율	1097.50	(-10.50)

뉴스&뉴스

www, 세계 바꾼 사건 1위

● '월드와이드웹'과 '페니실린'이 지난 80년간 세계를 바꾼 80대 사건 가운데 1·2위를 차지했다.

최근 영국문화원이 설립 80주년을 맞아 10개국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80년간 세계를 바꾼 80대 사건 1위로 인터넷망 '월드와이드웹(www, 1989년 개발)'이 선정됐다.

2위는 페니실린 대량생산 개발 방식(1943)이 뽑혔다. 60년 전만해도 나무 가시에만 찔려도 운이 나쁘면 팔이나 다리를 잘라야 했다. 1928년 영국의 세균학자 플레밍이 발견한 항생제의 태동 '페니실린'은 기적의 약물로 평가받았다.

/유선준기자

구자명 회장, 숙환 별세

● 구자명 LS니꼬동제련 회장이 26일 밤 11시30분경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62세.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29일 아침 7시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1952년생인 고(故) 구자명 회장은 LS그룹을 창업한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과 고(故) 최무 여사의 셋째 아들이다. 고 구인회 LG그룹 창업주, 고 구평회 E1 명예회장, 고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 조카다.

고인은 지난 해 세계 동산업계 최고의 영예인 '카퍼맨 오브 더 이어(올해의 구리인상)'를 수상했다.

/김태균기자 ksb@

구자명 LS니꼬동제련 회장의 생전 모습

12월 경기도 좋지 않을 듯

12월 경기가 부정적으로 예측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조사 결과 12월 종합경기 전망치는 94.0으로 기준선 100을 하회했다.

이는 엔저 지속,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 국내 경기 회복세 부진 등의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BSI지수가 100 이상이면 전망을 밝게 보는 답변이 어둡게 보는 답변보다 많았다는 뜻이며 100 이하면 그 반대다. BSI지수는 지난 10월 5개월 만에 기준선을 돌파(100.7)한 뒤 다시 하락했다.

전경련 김용욱 경제정책팀장은 "국내의 경기회복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데다 일본·중국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어두운 전망을 이어갔다"고 밝히며 "수출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환율의 안정을 취하고 장기적으로는 저성장 탈피를 위한 구조개혁 추진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망치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고용(100.4)을 제외한 내수(98.1)·수출(93.7)·투자(97.3)·자금사정(98.3)·재고(104.6)·채산성(94.2) 등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으로 전망됐다.

/박상훈기자

사랑의 김장 담그기 27일 오전 울산시 동구 서부축구장에서 현대중공업이 주최한 제 24회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현대주부대학, 현중 현미 어머니회, 현중 여사원회 등 4500여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재용의 삼성전자' M&A로 돌파구 연다

미래성장동력 육성… 국제적 감각으로 광폭행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병세가 호전되고 있지만, 사실상 3분기부터 삼성전자는 이재용(사진) 부회장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애플과 구글 등 라이벌 기업들이 다양한 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인수합병을 통해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1곳을 인수하는데 그쳤던 삼성은 하반기 미국과 캐나다 등 여러 기업을 인수하며 체질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자 새로운 먹거리 찾아나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의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지난 8월 2억 달러를 들여 미국 스마트싱스 인수에 이어 미국 공조제품 유통회사인 콰이어트사이드를 인수해 북미에서 기업간거래(B2B)와 스마트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9월에는 캐나다 모바일 클라우드 솔루션 회사인 '프린터온'을 인수했다.

또 최근 미국 의료기기 업체 '써모피셔사이언티픽'(써모피셔)과 체외 진단 분야 사업 협력을 체결했다. 그룹의 5대 신수종 사업 중 하나인 의료기기 분야에서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업체와 손을 잡은 것. 삼성전자는 스코틀랜드 국영의료 시범사업에서 성능을 인증 받은 'IB10'을 포함한 급성 심장질환·신장대사 염증 질환 등을 진단하는 다양한 현장 진단용 체외 진단기기를 써모피셔에게 공급한다.

◆이 부회장 감각 통할까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에 비해 국제적 인수합병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부회장은 예측과 협상을 주도하는 등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인물로, 세계적인 인물과 인맥을 구축하고 있다"며 "고객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 부회장의 행보에서 나타난다. 지난 7월 엔비디아의 젠슨 황크 CEO를 시작으로 MS 사티아 나델라,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코닝 웬델 윅스 등 최근 5개월간 알려진 것만 4명의 글로벌 CEO들이 방한해 삼성전자를 찾았다.

또 한화그룹과 대규모 '빅딜'을 단행한 이 부회장은 지난 27일 국외 시장 점검을 위해 일본 하네다로 출장을 떠났다.

/양성운기자 ysw@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평창길(9)소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9-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1 등
독자센터	02)721-9881

2002년 5월 3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186

your best partner

유진투자증권 ELB 2종 판매 유진투자증권은 28일 오후 2시까지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ELB) 2종을 판매한다. 두 상품 모두 만기 1년 6개월이며 KOSPI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유진투자증권 제공

은행들의 '꼼수'…서민만 후려쳐

기준금리 인하에도 가산금리 또 올려

한국은행이 사상 최저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일부 시중은행들이 서민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올려 손익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공시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7월 0.34%포인트인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평균 가산금리를 지난달 0.54%포인트로 인상했다. 외환은행도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60%포인트에서 1.02%포인트로 높였다.

다른 주요 시중은행도 가산금리 인상에 동참했다. 국민은행은 0.83%포인트에서 0.96%포인트, 하나은행은 0.64%포인트에서 0.87%포인트, 신한은행은 1.04%포인트에서 1.07%포인트로 각각 올렸다.

은행들은 한은의 기준금리 등이 영향을 끼치는 자체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가산금리에는 대출자의 신용도와 은행 마진 등이 반영된다. 결국 한은이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높여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한 것이다. 이로 인해 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7월 3.31%에서 지난달 3.56%로 오히려 상승했다. 외환은행도 3.55%에서 3.34%로 거의 비슷하게 유지됐다. 국민은행(3.60%→3.38%), 신한은행(3.62%→3.38%), 하나은행(3.57%→3.43%) 등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하락했으나 기준금리 인하폭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히 일부 은행은 저신용층을 중심으로 가산금리를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1~3등급 대출자의 가산금리를 1.02%포인트에서 1.04%포인트로 인상한 반면, 7~10등급의 가산금리를 1.10%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높였다. 신용대출 가산금리도 1~3등급은 2.18%포인트에서 2.14%포인트로 낮추는 대신 7~10등급은 5.56%포인트에서 5.81%포인트로 높였다.

우리은행의 신용대출 가산금리도 1~3등급이 1.93%포인트에서 1.85%포인트로 인하됐으나 7~10등급은 5.95%포인트에서 6.15%포인트로 인상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하락했다"면서 "이 때문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불가피하게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민수기자 mms@metroseoul.co.kr

셋째 주 木 '소비자보호의 날'

신한생명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보호의 날' 공식 명칭은 소통DAY(소비자와 통하는 DAY)며 소비자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고 전 직원의 소비자보호 의식 내재화를 위해 마련됐다.

신한생명은 매월 소통DAY를 운영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와 민원협의회가 참여하는 소비자보호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제도의 개선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민원을 통해 제도개선과 신규 아이디어를 제공한 고객에게 담당임원이 감사편지를 발송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헌내자보가 담겨있는 소통구러미를 문서수발을 통해 지점에 전달키로 했다.

사내방송을 통해서는 고객의 쓴소리(질책의 글)와 단소리(칭찬의 글)를 정취하고 주요 동향과 사례를 안내할 계획이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이 주최하는 보험민원 및 소비자보호 대책 세미나에서 민원감축과 소비자보호 우수 회사로 선정돼 생보사 대표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고객의 가치 창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서기자

보험사들 자살보험금 지급액 준비

당국과 법정 공방 중인 삼성생명이 재해자살보험금 지급 용도로 205억3800만원을 대손처리한데 이어 ING생명도 올해 안으로 해당 충당금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본지 취재결과 ING생명은 올해 안에 재해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비용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삼성생명은 최근 내부적으로 재해자살사망보험금 지급 관련 금액을 대손처리했다.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 중 기말까지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선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자살보험금 관련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생보사들이 충당금을 쌓는 이유는 회계규정에 재판 중이더라도 준비금은 쌓도록 되있기 때문이다.

회계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는 해당 보험과 관련 지급한 지 2년 내 보험금을 비롯해 청구받은 금액을 준비금으로 쌓아야 한다.

ING생명은 지난 8월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이어 금감원은 타 12개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지만 10개사가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금감원은 소송과 별도로 올해 안에 해당 중소형사에 대해 서면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추후 대형사를 중심으로 현장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ING생명 관계자는 "회계규정에 따라 현재 자살보험금 관련 준비금을 마련하고 있다"며 "2014년 회계기준 마감인 12월 말까지는 해당 준비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홀몸 어르신 위한 연탄 봉사 알리안츠생명은 27일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에 위치한 백사마을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미셸 시카고로몬(오른쪽 두 번째) 사장을 비롯한 회사 임직원 60여명이 참가했으며 총 2만 장의 연탄을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에 기부했다. 이 중 3000장의 연탄을 홀몸 어르신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알리안츠생명 제공

KB금융 부분 검사 착수

금감원, LIG손보 인수 승인 타당성 검토

금융감독원이 다음주에 KB금융의 부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LIG손해보험 인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주 내 감독총괄국과 일반은행검사국을 중심으로 검사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주부터 2주간 검사팀을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이번 검사에서는 ▲KB금융의 현 지배구조가 LIG손보를 경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자회사 관리능력을 제대로 갖췄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KB금융이 제출한 인수계획서를 토대로 KB지주와 LIG손보의 경영건전성, 경영상태, 인수에 따른 전반적인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김영기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심사에 대한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안다"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답변에서 "(KB금융에 대해)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 금감원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12월 중 금융위를 개최해 승인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신 위원장은 "충분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승인심사는 더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당국의 자진사퇴를 거부한 일부 KB금융 사외이사를 압박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클라우즈 오브 실스마리아
투 데이즈 원 나잇 • 화이트 갓
Section 2.
2014 씨네큐브 예술영화 프리미어 페스티벌
11.27. Thu ~ 12.3. Wed
갈증 • 꾸뻬씨의 행복여행
엘리노어 릭비 그 남자 그 여자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Section 4. 낭만의 도시 파리로의 여행
파리 폴리 • 질투 • 엘리제궁의 요리사

증시 분위기 바꿀 통화정책 나올까

내달 미 연준·중국 등 각국 시그널 관심

Issue&View

12월 주식시장 변수는

/김현정기자 hjk in@metroseoul.co.kr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이 성큼 다가온 시점에서 주식시장의 눈은 온통 각국의 주가 통화정책 변화에 쏠렸다.

당장 미국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상 시점에 대한 언급을 할 경우 글로벌 증시에 대한 충격이 예상된다.

그와 시장에서는 각국 정부가 추가 통화완화정책을 내놓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국내 금융권만 해도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인하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언월 증권가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12월 FOMC에서 금리인상 시점을 언급하거나 최소한 시그널이라도 줄지 여부다.

연준이 이번 FOMC에서 초저금리를 '상당기간' 유지한다'는 문구 중 '상당기간'을 삭제한다면 이는 실질적인 금리 인상의 첫 단추를 채우는 조치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5월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을 시사하자 글로벌 증시는 크게 출렁였다. 올 들어서도 미 양적완화 종료 이슈로 9~10월에 전체 증시 변동폭이 커졌다.

따라서 다음달 연준이 실제 문구 수정을 단행한다면 주가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증시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철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2월 FOMC에서 문구가 바뀐다면 6개월 안에 금리인상이 거의 확실시된다"며 "내년 6월 금리인상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시장 충격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12월에 금리인상 시그널이 나오지 않더라도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유럽과 일본, 한국, 중국 등 주요국들의 정책 기조도 증시의 커다란 관심사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은에 추가 금리인하를 주문하고 나서면서 논의가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KDB대우증권은 한은이 내년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에 추가 금리인하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내년 초 한은이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미국에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이러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봤다.

중국의 추가 통화완화 정책도 한국에 금리인하 압박 요인이다.

중국은 지난 21일 2년4개월여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다음 달 추가로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김승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때는 일본 영향이 컸으나 앞으로는 중국 영향이 더해질 것"이라며 "이는 12월 금통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보다 커졌으며 적어도 인하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겨둘 공산이 커졌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내년 1분기 전분기 대비 6%대로 낮아질 경우 중국이 지준율은 물론 금리까지 동시에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대우증권 역시 한국과 중국의 금리 방향성의 연관성이 2005년 이후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중국 금리인하가 국내 금리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결국 환율이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결제사고 검사 착수

'무단인출' 농협·'이중결제' 현대카드 대상

금융사 계좌에서 예금주도 모르는 새 돈이 인출되는 등 결제 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농협중앙회 산하 지역단위 농협통장에서는 1억이 넘는 거액의 돈이 예금주 모르게 통장에서 인출됐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이 모(50·여)씨가 자신의 통장에서 1억2000만원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발견해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의 계좌에서는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모두 41차례에 걸쳐 1회당 약 300만원이 15개의 대포통장으로 나뉘어 텔레뱅킹으로 송금됐다.

금감원은 "이 사고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농협 텔레뱅킹시스템과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농협중앙회에 검사인력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농협 측은 "텔레뱅킹 이체는 고객 계좌번호와 통장 비밀번호, 시금이체 비밀번호 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자체확인 결과 내부에서 이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메인서버가 해킹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농협측은 다만 "손해보험사에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 청구를 의뢰했고 현재 보험사에서 보상심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번 건에 대해 고객에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카드에서는 전산오류가 발생해 카드 대금이 이중으로 결제되기도 했다.

이번 사고는 내부 전산 시스템 문제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고객 1364명의 계좌에서 15억원이 넘는 카드 대금이 이중으로 결제됐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의 원인과 과실 여부 확인을 위해 현대카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백아란기자 a.ve@metroseoul.co.kr

건강나눔 도심걷기
지역아동센터 겨울 체육 프로그램 지원
3,650,000원

저소득 아동 체육지원금 365만원 기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하 생보재단)은 27일 서울시와 공동으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협의회에 저소득 아동 겨울 체육활동 지원금 365만원을 전달했다. 유석쟁(오른쪽) 생보재단 전무가 이수경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협의회 회장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제공

퇴직연금 펀드 가입이벤트 눈길 대신증권은 연말까지 퇴직연금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백화점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 대신증권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고객 가운데 5명을 선정해 모바일 백화점상품권 30만원씩 증정한다. /대신증권 제공

신한금융, 스포츠로 고객·사회와 相生

골프·농구 발전 기여, 인천아시안게임도 후원

지난 2012년 일본프로골프투어 후지산케이 클래식 우승자였던 김경태 골퍼와 ○○○스포츠 사상 최초로 6년 연속 통합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여자농구단, 지난 10월 성공리에 막을 내린 인천 아시안게임의 공통점은 뭘까.

바로 신한금융그룹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은 최근 남자골프와 여자농구 발전을 지원하는데 이어 스포츠 관람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등 스포츠와 연관된 사업에 빠졌다.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기업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으로 여기는 한편 고객을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스포츠를 후원함에 따라 더 윤택한 사회와 고객의 신뢰를 얻겠다는 복안이다.

신한금융의 후원에는 "기업은 고객, 사회와 상생 발전해야 한다"는 신념이 깔려 있다.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이 스포츠 프로그램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은 남자골프와 여자농구 활성화에 그룹의 역량과 자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적 행사인 인천아시안게임 흥행을 위해 공식 스폰서로서 적극적인 후원 활동을 전개했다.

스포츠 대회도 적극 후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범국가적 행사인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해 최고등급 후원사인 '프레스티지 파트너'가 되어 공식 후원사로 활동했다.

/백아란기자

공공건설 현장직원 '발주자 횡포 경험' 85%

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 호혜관계 회복방안 마련해야

공공공사 수행 과정 중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를 경험한 건설 현장 직원이 85.3%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 실태 조사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다.

김원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은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의 관행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5.0%가 원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응답자의 68.4%가 공정 수행에 영향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인 피해와 보상 실태를 살펴보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14개 항목과 관련한 계약적 권리 피해를 경험한 사례는 총 378건, 피해 발생 비율이 평균 46.6%인 반면, 피해 사례 중에서 계약적 권리를 보상받은 경우는 평균 6.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설문 응답자의 85.9%가 설계변경 불인정, 단가의 부당 삭감 등 설계변경 관련 피해를 경험했음에도 피해 발생 이후 계약적 권리를 보상 받은 경우는 16.4%에 그쳤다.

응답자의 76.3%가 발주자 귀책 사유의 공기 연장 간접비 미보상 등 계약 금액의 조정과 관련한 피해를 경험했다. 반면 피해 발생 후 보상을 받은 비율은 17.8%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53.6%가 발주자 수행 업무를 시공자에게 전가하는 부당 특약의 피해를 경험했으나 피해 발생 후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전무했다.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65.8%가 계약적 의무 사항도 아니지만 업무를 대행했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 사례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공자가 계약적 권리 행사에 실패한 사유에 대해서는 '발주자와의 관계 악화 또는 후속 사업에의 영향 등을 우려한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대 연구위원은 "내·외부 감사 등의 이유로 외형적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계약상 대자인 시공자의 권리 주장 자체가 봉쇄되거나 무마되고 있다"면서, "단위 현장의 성과 평가가 예산 절감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발주기관의 계약 담당자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는 등 부당 행위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향후 발주자의 불공정한 관행과 지위 남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상호 호혜적 계약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발주자의 인식 전환'을 1순위로 꼽았다. '보복 조치 금지 조항 신설 등 계약 관련 법령 등의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순위로 나타났다.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 및 우월적 지위 남용 경험

김 연구위원은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계약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계약 규정의 개선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공자의 모니터링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설계변경 시 부당한 단가 적용과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제한 등의 특약 개선 ▲당초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합당한 비용 청구와 보상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연구위원은 "공공건설 현장에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관행이 만연해 있는데 계약상대자인 시공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발주자와 시공자의 대립과 갈등을 조례하는 계약 관리 관련 현안을 파악하고, 신의성실의 계약 원칙이 준수되는 상호 호혜적 관계를 회복하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김두탁기자 kim@metroseoul.co.kr

LG 구광모 부장, 상무로 승진

오너家 후계 수업 관측 2015년 임원인사 발표

구본무 회장의 외아들인 구광모 LG(LG그룹 지주회사) 부장이 상무로 승진했다.

본격적인 후계자 수업에 들어갔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LG가 27일 시장선도를 위한 사업계질 강화와 미래 준비에 초점을 맞춘 2015년 임원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승진한 구광모 상무는 1978년생으로 2006년 LG전자 재경부문에 대리로 입사, 2009~2012년 미국 뉴저지 법인에서 금융과 회계 업무를 담당했다.

귀국 뒤에는 HE사업본부를 거쳐 지난 4월부터 LG 시너지팀에 근무중이다.

지난 2011년 승진 연한인 4년을 채우고 차장으로 승진 뒤 지난해 2년 만에 부장으로 승진했다.

올해 인사에서 상무로 승진하면서 후계 구도 작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번 인사는 또 '전략과 실행력'을 겸비한 인사의 전진배치가 특징이다.

세계경기 둔화와 환율 변동성 확대, 주요 사업 분야에서의 중국기업의 거센 추격 등 도전적인 경영환경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시장선도 가속화가 엿보인다.

구광모 LG 상무

조준호 MC사업본부장(사장)

스마트폰 사업을 이끄는 MC사업본부장에는 ㈜LG 대표이사로 지난 4년간 구 회장을 보좌했던 조준호 사장이 선임됐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LG전자 정보통신사업부문 전략담당과 북미사업부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글로벌 브랜드 마케팅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또 신임 LG전자 HE사업본부장으로 선임된 권봉석 부사장은 LG전자의 모니터 사업을 세계 1위로 만든 인물이다.

LG전자 TV사업이 세계시장을 리드할 수 있도록 도약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LG전자 최상규 한국영업본부장은 사업 감각과 강한 실행력으로 성과를 창출해 사장으로 승진했다.

LG디스플레이 여상덕 부사장은 모니터 개발 담당, TV 개발담당, 개발센터장을 역임하고 최고기술경영자(CTO)로서 제품·기술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디스플레이분야 최고 전문가다.

LG이노텍은 성장 사업인 차량 부품사업의 글로벌 영역 확장 기반을 마련한 전장부품사업부장 정용선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조직개편을 통한 미래준비도 강화했다. 전사 신사업 발굴과 전개를 위한 이노베이션사업센터장은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안승권 사장이 겸임하고, B2B부문은 노환용 사장, 에너지사업센터는 이상봉 부사장이 각각 맡는다.

LG화학은 기존 3개 사업본부(석유화학, 정보전자소재, 전지) 체제를 3개 사업본부(기초소재, 정보전자소재, 전지)와 1개 사업부문(재료사업부문)으로 재편하고 책임경영 체제를 더욱 확고히 했다.

이에 기초소재사업본부장에는 손옥동 부사장(현 ABS사업부장), 재료사업부문장에는 노기수 부사장(현 기능수지사업부문장)을 각각 선임했다.

박진수 부회장은 최고경영자(CEO)로서 '1인' 자원의 공통 및 조정과 전략적 역할에 집중할 예정이다.

/정성욱기자 ysw@

KT 계담업체 전용 결제솔루션 '페이온플러스' 출시 KT는 배달업체를 대상으로 현금이나 카드로 휴대폰 소액결제로 결제할 수 있는 '페이온 플러스' 솔루션을 출시하고 가맹점을 모집한다. /KT 제공

기아차, 고객 스토리 뮤비 화제

"20년 만에 그 시절의 친구들과 밴드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만의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싶어요."

20년 전 '이이기 밴드'로 활동을 하며 국내 밴드 톱10에 선정됐던 청년들은 어느덧 40대가 됐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원으로, 사업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바빴던 그들이 기아차 올 뉴 쏘렌토 맨즈 드림 프로젝트 바이럴 영상의 '당신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라는 우직한 질문에 그들의 청춘을 뜨겁게 했던 음악을 떠올렸다. 그리고 20년 전의 꿈을 다시 실현하기 위해 악기를 들었다.

보컬 이상휘 씨의 신청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된 뮤직 비디오는 음악을 포기하고 돈가스 가게 사장으로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던 드러머 정일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기아차 올 뉴 쏘렌토 바이럴 영상 장면.

자신의 가게 앞에서 드럼 자리를 비워놓고 거리 공연을 하는 친구들의 믿음과 사랑하는 아자의 응원으로 다시 함께 연주를 시작하고, 그토록 꿈꾸던 음악을 계속하며 공연장에서 공연까지 하게 되는 것이 뮤직비디오의 줄거리이다.

전시장·서비스센터를 한 곳에…시너지↑

르포

■기아차 드라이빙 센터

신차에 관심 있는 이들의 구매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들은 무엇일까? 광고나 입소문, 각종 SNS에서의 평가 등을 보고 차를 고르는 이들도 있지만 최근에는 차를 직접 보고 타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가 크게 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기아차의 행보는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을 시작으로 10월 강서까지 총 18곳의 드라이빙 센터를 구축, 국내에서 차를 판매하는 브랜드 중 단연 돋보이는 '전국망'을 완성했다. 기아차가 자랑하는 이들 센터 중 기자는 강서 드라이빙 센터를 찾았다.

◆깔끔한 내부 대규모 시설 '눈길'

내비게이션 안내대로 차를 모니 황갈색의 웅장한 건물이 나타났다. 입구에 들어서면 왼쪽에는 자동차 전시장이, 오른쪽에는 서비스 센터가 고객을 맞는다. 기아차 가양지점과 강서서비스 센터가 합쳐진 복합 거점인 것. 그 사이에 드라이빙 센터 안내 데스크가 있다.

담당 매니저가 나오더니 테이블로 안내한다. "시승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고요, 운전면허증 보여주시면 됩니다."

매니저의 깍듯한 태도에 어쩐지 으쓱해진다. 간단한 동의서 작성을 마치면 바로 시승차가 준비된다. 기자가 만난 차는 기아차의 최고급 SUV인 '모하비'였다. 예전에 처음 나올 때 시승은 아주 오랜만에 타는 것이라 어떤 느낌을 줄지 궁금해졌다.

사승 코스는 일반 도로를 지나 올림픽대로를 거쳐 다시 센터로 돌아오는 구성으로 짜여졌다. 신호를 받는 시내 도로구간과 정속주행을 경험할 수 있는 간선도로가 적절히 배분된 느낌이다.

오랜만에 타본 모하비는 조용하고 안락한 승차감이 인상적이었다. 국내 몇 안 되는 프레임 타입 SUV인 데다 힘이 좋아서 마직도 마니아층이 두텁다는 게 담당 매니저의 설명이다.

다시 센터로 돌아오니 시승 설문지가 주어졌다. 시승 후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내용인데, 이걸 작성하면 기아차가 마련한 이벤트에 응모할 자격이 있다. 운 좋으면 외식상품권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라 냉큼 설문지를 작성했다.

기아차 강서 드라이빙 센터. 지점과 서비스 센터가 결합된 복합 거점이다.

강남 시작으로 총 18곳에 구축

강서 드라이빙 센터를 이끌고 있는 조해환 센터장은 "최근에 오픈했지만 매일 같이 방문객이 꾸준하다"면서 "주말에는 내방객이 아주 많다"고 했다. 시승은 철저히 예약제로 이뤄지는데, 기아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센터별로 보유 차종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게 좋다. 강서 센터에는 K3 디젤, K7 하이브리드, K9 등 7개 차종이 마련돼 있다.

건물 내부를 둘러보니 넓찍한 서비스 센터가 눈에 들어온다. 가만 보니 특이하게도 '미예약' 코너가 마련돼 있다. 강서 서비스 센터의 이상금 운영지원팀장은 "처음에는 없던 코너"라면서 "간혹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하는 고객들이 있는데, 이들을 맞이할 방법이 남강해 본사에 건의 후 미예약 코너를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 업체 중에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는 거의 보기 힘들다.

차가 수리되는 시간 동안 전시장으로 가서 차를 구경할 수도 있는 것도 이곳 복합거점의 장점이다. 공간이 넓다보니 모닝부터 거의 전 차종이 전시돼 있어 원하는 차종을 마음껏 둘러볼 수 있다.

강서드라이빙 센터의 자랑거리는 또 있다. 2층에 마련된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그것이다. 이상금 운영지원팀장은 "오는 12월 또는 내년 1월 오픈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시설이어서 문을 열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모델하우스 찾으면 선물이 '한가득'

장미꽃부터 샤넬백까지 풍성한 경품… 분양 공세

비수기도 잊어 연말까지 역대 최대 신규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공급되는 단지마다 수요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다채로운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

추운 날씨 모델하우스를 찾는 고객들을 위해 어묵, 간식 등의 간단한 겨울간식을 주는가 하면, 청약 당첨자에게 축하의 의미로 케이크와 장미꽃을 선물하기도 한다. 또 고급 수요층을 겨냥해 명품백을 경품으로 내건 곳도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이 경기도 광주 오포읍에 분양한 'e편한세상 오포3차'는 청약자 방문 이벤트와 당첨자 경품이벤트를 실시한다. 27일과 30일 청약안좀서를 지참한 고객에게 휴심세트를 증정하고, 다음달 6일과 7일에는 당첨자가 견본주택을 방문하면 케이크와 장미꽃을 줄 예정이다.

SK건설이 경남 창원시 월영동에서 공급한 '월영 SK오션뷰'도 청약 고객을 대상으로 50인치LED TV와 자전거, 생활용품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청약 후 견본주택에 방문해 응모권을 기입하면 참여가 완료되며, 당첨자 추첨은 12월 3일 오후 4시에 이뤄진다.

한신공영이 경북 영천시 야사동에서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영천 한신休플러스'는 청약자와 계약자는 물론 방문객에게도 명품가방, 지갑, 가전제품 등을 추첨해 제공한다. 또 방문객들을 위해 타로카페, 네일아트 서비스, 카페테리아 등도 운영한다.

28일 금요일에 견본주택 문을 여는 단지들도 다양한 경품을 내걸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광교신도시 원천호수공원 D가블록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광교'는 28일부터 3일간 선착순 입장 고객 500명에게 문화상품권, 3000명에게 에코백을 증정한다. 또 추첨을 통해 1등 한 명에게 샤넬백을, 2등 3명에게는 삼성로봇청소기를, 3등 5명에게는 자전거 등을 준다.

한신공영이 시흥목감지구 B-8블록에 짓는 '시흥목감 한신休플러스'는 추첨을 통해 황금열쇠를, 효성이 경기도 용인시 마북동에 분양하는 '용인 구성역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는 선착순으로 사은품과 어묵·꿀빵 등의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박선옥기자 [illegible]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처럼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